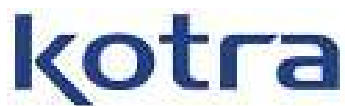


스웨덴

정보수정일자: 2009. 12. 31

작성처: 스톡홀름 KBC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 전재, 판매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의해 엄격하게 금지되며 위반 시에는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http://www.kotra.or.kr>

<http://www.globalwindow.org>

◀ 목 차 ▶

I. 국가일반

- 국가개요 /1
- 정치사회동향 /2
- 한국과의 주요이슈 /4

II. 경제

- 경제동향 및 전망 /8
- 주요 산업 동향 /9
- 지역무역협정 체결현황 /10

III. 무역

- 1. 교역동향**
 - 수출입 동향 /12
 - 한국과의 교역동향 및 특징 /14
- 2. 무역관련 주요제도 및 절차**
 - 수입규제제도 /15
 - 대한수입규제동향 /17
 - 관세제도 /17
 - 주요인증제도 /19
 - 지적재산권 /22
 - 통관운송 /23

IV. 투자

1. 투자환경 및 동향

- 투자환경 /25
- 외국기업 투자동향 /25
- 우리기업 투자동향 /27

2. 외국인투자 유치제도

- 주요 투자법 내용 /28
- 진출형태별 절차 /29
- 투자입지여건 /32

3. 사업관리

- 노무관리 /34
- 조세제도 /35
- 외환관리 및 자금조달 /35

V. Business 참고정보

- 시장특성 /36
- 물가정보 /39
- 바이어발굴 /40
- 상관습 및 거래 시 유의사항 /41
- 무역, 투자 진출 시 애로사항 /42
- 진출 성공, 실패 사례 /43
- 이주정착 가이드 /44
- 출장가이드 /47
- 주요 전시회 개최일정 /61
- 유관기관 웹사이트 /64

Sweden



1992 MAGELLAN GeographixSM Santa Barbara, CA (800) 929-4627

1. 국가일반

1. 국가개요

가. 일반 사항

국명	스웨덴(Sweden)
위치	스칸디나비아반도 동쪽
면적	449,964km ²
기후	알래스카 남부 그린란드와 동일한 위도에 위치하나 이들 지역보다는 기후가 훨씬 따뜻함.
수도	스톡홀름
인구	9,302,133명 (2009. 8월말 기준)
주요 도시	Stockholm, Goteborg, Malmo
민족	북구 게르만족(스웨덴인 90%) Sami족(또는 Lapp족 약 17,000명)
언어	스웨덴어
종교	루터교(국교, 88%)
건국일	1523년 6월 6일
정부 형태	입헌군주제
국가 원수 (실권자)	국왕: 칼 구스타브 16세(Carl XVI Gustaf) 취임일: 1973년, 임기: 종신
	수상: 프레드릭 라인펠트 (Fredrik Leinfeldt, 취임일: 2006년, 임기: 4년 2006년 9월 총선에서 보수당이 승리함에 따라 수상으로 취임

자료: 스웨덴 통계청, 스웨덴 경제연구소, E.I.U

나. 경제 지표

GDP	4,788억 달러(2008)
실질 경제 성장률	-0.2 %(2008)
1인당 GDP	36,371달러(2008)
실업률	5.9%(2008), 8.0%('09.8월말 기준)
물가 상승률	4.4%(2008), -0.8%('09.8월말 기준)
화폐 단위	Swedish Krona(SEK)
환율	1달러 = 6.58SEK(2008 평균), 7.97SEK('09.1-8월 평균)
외채	1,595억 달러 (2009.7월말 기준)
외환 보유고	40,941백만 달러(2009.7월말 기준)
산업 구조	농림수산업(2.3%), 제조업(20%), 건축(10%), 무역업(18.6%) 금융업(11%), 보건의료업(19.4%), 교육연구업(8%), 기타(11.7%)
교역 규모	수출(1,817억 달러), 수입(1,647억 달러), 2008
교 역 품	○ 수출 - 목재, 종이 펄프(14%), 미네랄 제품 및 금속(9%), 석유 제품(3%), 엔지니어링 제품(54%), 기타 제품(20%)
	○ 수입 - 산림 제품(3%), 미네랄 제품 및 금속(8%), 화학제품(12%), 석유 제품 (8%), 엔지니어링 제품(49%), 기타 제품(20%)

자료: 스웨덴 통계청, 스웨덴 중앙은행

다. 한-스웨덴 관계

체결 협정	○ 무역의정서('67), ○ 사증면제협정('69), ○ 섬유협정('79) ○ 이종과세방지협정('81), ○ 경제산업기술 및 과학협력협정('85) ○ 투자보장협정('95)
교역 규모	○ 대 스웨덴 수출: 935백만 달러(2008) ○ 대 스웨덴 수입: 1,299백만 달러(2008)
교역품	○ 대 스웨덴 수입: 중후판, 의약품, 원동기 ○ 대 스웨덴 수출: 선박, 휴대폰, 승용차
투자 교류	○ 우리나라의 대 스웨덴 투자: 440만 달러(2008) ○ 스웨덴의 대한 투자: 없음(2008)
교민	○ 이민교포(1,300명), 한국계 스웨덴인(7,567명)

자료: 스웨덴 정부, 스웨덴 통계청, 한국무역협회, 지식경제부, 한국수출입은행

2. 정치 사회 동향

스웨덴의 통치 체제는 내각제로서 최대 의석을 확보한 당의 대표가 수상으로 임명되어 내각을 이끌고 있다. 현재의 집권당인 보수당은 지난 2006년 선거에서 승리하여 프레드릭 레인펠트(Fredrik Leinfeldt) 수상을 중심으로 한 내각을 구성하고 있다.

현 정부의 국정 목표는 경제 성장의 공고화, 긴축 재정, 물가 안정, 자국 통화 안정, 경제 정책의 성공적 수행, 노사 관계의 성숙화, 고실업을 해소, 실리 외교 등이다.

가. 2006 총선 결과

- 근소한 차이로 비사민계 정당 승리
 - 금번 총선에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사민계 정당과 사회민주당(비사민계) 정당 간에 팽팽한 대결을 양상을 보였다.
 - 사민당, 좌파당, 환경당으로 구성된 사민계 정당은 금번 총선에서 총 46.2%의 득표율을 보이면서 171 석의 의석을 차지하였고, 비사민계 정당인 보수당, 자유당, 중앙당, 기민당은 48.1%의 득표율을 보이면서 총 178 석의 의석을 차지하여, 사회민주당(비사민계) 정당이 7 석의 근소한 차이로 사민계 정당을 제치고 최종 승리하였다.
 - 최근 70 여 년 동안 지난 1976 년과 1991 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은 사민당이 계속 집권하였다.

정당별 득표 및 의석 수 확보 현황

정당 구분	득표율			의석 수		
	'02.9월 총선	'06.9월 총선	증감률	'02.9월 총선	'06.9월 총선	증감률
사민당	39.8	35.2	-4.6	144	130	-14
좌파당	8.3	5.8	-2.5	30	22	-8
환경당	4.6	5.2	+0.6	17	19	+2
사회민주당	52.7	46.2	-6.5	191	171	-20
보수당	15.2	26.1	+10.9	55	97	+42

정당 구분	득표율			의석 수		
	'02.9월 총선	'06.9월 총선	증감률	'02.9월 총선	'06.9월 총선	증감률
자유당	13.3	7.5	-5.8	48	28	-20
중앙당	6.1	7.9	+1.8	22	29	+7
기민당	9.1	6.6	-2.5	33	24	-9
비사회민주당	43.7	48.1	+4.4	158	178	
기타	3.6	5.7	+2.1			+20
계	100.0			349	349	

자료: 스웨덴 정부

나. 비사민계 정당 승리 및 사민계 정당 패배 원인

- 최근 74 년 중 비사민계 정당이 집권했던 1976 년과 1991 년을 제외한 나머지는 사민당이 집권하였다.
- 특히 보수당은 2006 년 총선에서 26.1%의 득표를 했는데 이는 1928 년 이래 최고의 지지율이며 보수당 지지율이 25%를 넘어선 것은 1973 년 이후 처음이다. 이번 총선에서 비사민계 정당이 승리할 수 있었던 토대는 보수당이 2002 년 총선에서 참패를 겪은 데서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 Mr. Fredrik Reinfeldt(프레드릭 라인펠트)가 보수당의 신임 당수가 되면서 정치 노선을 과거의 우경 노선에서 중도 노선으로 전향함으로써 유권자의 지지를 확보했다.
- 중앙당수 Ms. Maud Olofsson(모드 올로프손)은 중앙당 지지율이 의회 진출 하한선인 4%에 근접할 정도로 어려운 시기에 당수로 취임한 후 당 혁신에 성공하였으며, 핵 발전 문제에 대해 사민당과의 협력 관계를 청산함으로써 금번 비사민계 정당의 확실한 단합이 가능하게 하였다.
- 기민당수 Mr. Göran Hågg Lund(여란 해그룬드)는 주택 보유세 폐지를 주장하여 지지를 얻었을 뿐 아니라 탁월한 정치인으로 부각되는 등 보수당, 중앙당 및 기민당 등 비사민계 3 개 정당에 새로운 지도층이 들어섰다. 그와 함께 과거의 경직된 사고 방식을 버리고 정당 간 견해 차이를 해소함으로써 동일한 선거 공약을 채택하고 총선에 임할 수 있었던 것이 비사민계 정당의 승리 요인 중 하나로 분석되고 있다.
- 사민당은 최근 좌파당 및 환경당과의 협력에 깊이 빠져 기업 풍토 조장을 위한 정책이나 세금 감소 등 중도로 전향할 여지가 전혀 없었다. 또한 Mr. Göran Persson 총리에 대한 유권자의 지지가 2002 년 총선 때 최고에 달한 이후 2003 년 EMU 가입 여부 국민 투표에서 실패하면서 하락하기 시작하여, 2002 년 말 쓰나미 발생과 관련하여 국민의 불만이 고조되기 시작하였다.
- 또한 사민당은 총선 시마다 실업자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었는데 2006 년 총선에서 처음으로 실업자 문제에 집중하지 않은 것도 큰 실책 중 하나로 분석되고 있다.

다. 국내외 주요 정책 변화

- 고용 관련
 - 고용주세 부담 감소를 통한 고용 촉진
 - 2009 년부터 32.42% → 31.42%로 1% 인하조정

- 실업자 수당
 - 실업 후 최초 200 일 동안 자신이 받던 급여의 80%에서 200 일 이후에는 70%, 300 일 이후에는 65%로 감소
- 세금
 - 2007 년에 재산세(부유세)를 반감하고 임기 중 재산세 완전 폐지
 - 주택 소유세 2008 년까지 폐지- 2008 년 주택소유세 폐지 완료
- 의료
 - 의료보험 보상액 상한선을 월 33,000 크로나에서 24,800 크로나로 인하
 - 의료비 및 의약품 자가 부담액 인상
- 교육
 - 초등학교 6 학년부터 공식 성적 부여(현재 8 학년부터 공식 성적)
- 이민/난민
 - 취업 이민 허용
 - 스웨덴에서 취업하여 자신을 부양할 수 있는 사람에게 거주권 부여
- 환경/에너지
 - 금번 임기 동안 핵발전소 현재 수준 유지
- 경제 성장
 - 기업 관련 법규 간소화
 - 청소년 및 장기 실업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 고용주세 인하
 - 부유세(재산세) 폐지 등을 통해 경제 성장 촉진
- 노인 복지
 - 정년 노인에 대한 주택 보조금 지급 수준을 최고 월세 5,000 크로나의 93%에서 95%로 상향 조정
- 외교 안보 정책
 - 과거 사민당 정부의 정책 협력당인 환경당 및 좌파당은 NATO 와의 협력에 반대하고 군 축소를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사민당은 NATO 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였다. 비사민계 정당 중 자유당은 스웨덴의 NATO 가입을 적극 주장하는 입장이며, 나머지 당들 또한 스웨덴과 NATO 간 협력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는 상황으로서 향후 스웨덴과 NATO 간 협력은 최소한 현상 유지될 것이며 앞으로 보다 적극적인 협력 강화도 예상되고 있다. 또한 비사민계 정당 측에서는 그 동안 스웨덴 군 능력 부족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었던 바 향후 군 축소 범위 및 축소 속도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3. 한국과의 주요이슈

이명박 대통령은 한-스웨덴 수교 50 주년을 맞이하여 2009.7.11-7.13 까지 스웨덴을 방문, 한-스웨덴 정상회담을 비롯 여러 행사에 참가하였다. 날짜 별 중요행사 내용은 아래와 같다.

2009.7.11(토)

□ 하마비(Hammarby) 방문

이명박 대통령은 스웨덴 공식 방문 첫날인 11 일 스톡홀름시의 주거형 친환경도시인 하마비(Hammarby)를 방문하고, 주요 시설을 시찰하는 한편, 하마비의 개발 경위 및 운영 현황 등에 관한 브리핑을 청취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하마비와 같은 친환경도시의 개발이 전 세계가 당면한 기후변화 및 에너지 위기를 대응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 모범적인 사례가 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한국이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새로운 국가전략으로 채택하여 녹색기술, 녹색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중임을 설명하면서 한국의 친환경도시개발에 있어 '하마비 모델'이 좋은 귀감이 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하마비(Hammarby)는 최근 세계 각국으로부터 미래형 도시개발 모델로 주목받고 있으며, 자원절감과 환경보전을 동시에 달성한 성공적인 도시개발 사례로 평가받고 있는 친환경주거 도시이다.

2009.7.12(일)

□ 에릭슨 CEO 면담

12 일에는 에릭슨사의 CEO 한스 베스트베리(Hans Vestberg)와 면담을 가졌으며, 이 자리에는 방송통신위원회 최시중 위원장과 이윤호 지식경제부장관, 윤진식 경제수석이 배석하였다.

이번 면담에서 이대통령은 한국의 저탄소 녹색성장 전략을 소개하고,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ICT 네트워크를 녹색 성장을 선도할 수 있는 인프라로 활용하여 세계 ICT 기술과 시장을 선도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은 에릭슨의 한국에 대한 투자 확대를 적극 환영하고, 한국의 대기업은 물론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과도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 질 수 있기를 바란다는 당부의 말을 전하였으며, 향후에도 외국기업이 국내시장에서 국내 기업과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데 앞장설 것임을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의 이번 면담을 계기로 만들어진 에릭슨과 한국의 협력 및 투자계획은 에릭슨의 앞선 그린 네트워크 기술과 한국이 가진 세계적인 수준의 ICT 테스트 베드 환경을 결합하여, 태동기에 있는 그린 ICT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이와 아울러, 한국은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WiBro 를 기반으로, LTE 진영의 선두 주자인 에릭슨과 협력하게 됨에 따라, 차세대 이동통신 시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는 LTE 시장에서도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09.7.13(월)

□ 스웨덴 의회 의장 접견

이명박 대통령은 7 월 13 일 15:00-15:30 간 「페르 베스테베리」(Per Westerberg) 스웨덴 의회 의장을 접견하고, 양국관계, 북핵 문제 등 한반도 정세, 한-EU FTA 및 양국 의회 차원의 교류협력 증진 등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한국과 스웨덴 양국이 최근 활발한 고위급 인사교류, 교역·투자의 지속적 확대 등 제반분야에서 협력관계를 긴밀히 발전시켜 왔음을 평가하고, 향후 양국관계가 더욱 공고히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스웨덴 의회 차원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남북관계 현황 및 우리의 대북정책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베스테베리 의장은 최근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등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면서, 국제사회가 단합된 대응을 통해 핵 비확산 문제를 다루어 나가야 한다는 견해를 표명하고 북한의 비핵화와 상생의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정책에 대해 스웨덴 의회의 초당적 지지 입장을 전달하였다.

아울러, 이명박 대통령과 베스테베리 의장은 한-EU FTA 타결을 축하하고(타결지연시: FTA 가 조속히 체결되어) 한-스웨덴 양국관계 및 한-EU 동반자 관계가 더욱 확대·강화될 수 있기를 희망하였으며, 이 대통령은 베스테베리 의장에게 향후 양국 의회간 상호 교류가 더욱 확대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한-스웨덴 CEO 간담회

한-EU FTA 최종 합의안 마련에 대해 조속한 가서명을 기대하고 한-스웨덴 수교 50 주년을 맞아 양국간 경험 확대를 모색하고자 한-스웨덴 CEO 간담회를 마련, 양국 기업인 약 30 여명이 참석하였다.

비록 양국이 아직 교역·투자 규모가 크지는 않으나,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7 월 1 일부터 EU 의장국을 맡게 된 스웨덴 정부와 기업인들이 금번에 합의안을 도출한 EU FTA 최종 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해 줄 것도 당부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CEO 간담회 직전 양국 경제인 회의에서 논의된 자동차, IT, 에너지 3 개 분야에 대해 보고를 받고, 앞으로 한국과 스웨덴이 상기 3 개 분야에서 협력할 여지가 매우 많은 분야라고 언급하였다.

먼저, 자동차분야에서 기후변화 대응 및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천연가스 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 기술개발 협력이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 스웨덴(바이오가스(사))의 발달된 바이오가스를 강원도(원주)(MOU, '08 년 4 월)와 협력하여 “바이오메탄 자동차 연료화 사업”추진('11 년.6 월부터 시범사업)
- 스웨덴의 모바일과 한국의 인프라 등 상호 강점분야를 중심으로 산업기술 개발 및 표준제정 협력을 확대하면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

- 금번 방문시 세계적 기업인 에릭슨과 한국의 KT 간 통신 Ecosystem 구축을 위한 MOU 체결
- 에릭슨은 향후 2015 년까지 한국에서 약 1,000 명을 고용하는 R&D 센터를 포함하여 일본에 버금가는 투자를 준비 중
- 산업기술진흥원-스웨덴 기술혁신청간 산업기술협력 LOI 체결 추진 중
- 기표원-스웨덴표준원간 표준협력 MOU 체결 계획
- 스웨덴은 지난 30 년간 석유소비를 40% 이상 감축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 세계 선도국가이고, 한국도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발전의 패러다임으로 삼고 있는 만큼 양국간의 협력 필요성이 높다고 언급
- 신재생에너지 비중: 스웨덴 30%, 핀란드 23.2%, 미국 5.0%, 일본 3.1%, 한국 1.4%
- 2020 년까지 탈석유 국가화를 목표로 하는 등 재생에너지 정책 적극 추진
- 이명박 대통령은 전 세계가 겪고 있는 경제위기를 언급하면서, 전세계가 G-20 체제를 통해 공동 대응하고 있는 것을 바람직하다고 평가하고, 보호주의 저지, 거시정책 공조 등과 관련하여 EU 의장국인 스웨덴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과 스웨덴은 공히 90 년대에 금융위기를 극복한 경험이 있는 바, 경험 공유 등을 통해 위기 극복 공조를 강화하자고 언급

□ 스웨덴 총리와 정상회담

스웨덴을 공식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은 7 월 13 일 오전 「프레드릭 라인펠트」(Fredrik Reinfeldt) 스웨덴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관계 발전방안, 한-EU 협력 증진, 북핵 등 한반도 문제,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등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 있는 협의를 하였다.

이번 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금년 양국이 수교 50 주년을 맞이한 것을 축하하고, 오랜 인연을 바탕으로 아시아와 유럽 대륙을 가로질러 상호 긴밀한 협력 파트너로 성장한 양국관계를 평가하면서, 향후 양국간 우호협력 관계 확대를 위해 공동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국 정상은 한-EU FTA 협상 최종 합의안이 도출된 것을 환영하고, 조속히 가서명 되기를 기대하였다. 양 정상은 한-EU FTA 체결이 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서 양측간 교역, 투자 규모를 획기적으로 증대시켜 궁극적으로 양측 모두에게 경제적 혜택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자유무역을 통하여 전 세계적 보호무역주의를 배격한다는 메시지를 보낼 것이라는 의견을 같이하였다.

양국 정상은 경제·통상분야에 있어 양국간 협력 잠재력이 매우 크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양국이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IT 등 첨단과학, 산업 및 친환경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특히, 스웨덴의 선진기술을 바탕으로 양국간 추진 중인 바이오가스 및 원자력 분야에서의 협력을 집중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양국 정상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과 같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행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어 양정상은 북한의 비핵화 실현을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로 단합된 대응을 유지해야하며 현 상황에서는 안보리 결의 1874 호의 충실한 이행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이 대통령은 그간 북한의 인권 개선과 인도적 지원 등의 문제에 대하여 스웨덴이 적극적 역할을 수행해왔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반도 및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두 정상은 국제 금융위기의 조속한 타개를 위한 양자 및 다자 차원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으며,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미래에 대비하는 데 있어 녹색성장 전략이 중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하고, 기후변화 협상의 성공적인 타결을 위해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정상회담 직후 이 대통령은 라인펠트 총리와 함께 ‘한-스웨덴 군사비밀보호협정’ 서명식에 임석하고, 양국간 군사교류 및 국방협력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되는 동 협정의 조속한 발효를 통해 양국이 국방분야에서의 기술정보 교환 및 공동 연구개발 등 실질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하였다.

스웨덴은 1959년 3월 11일 우리나라와 공사급 외교 관계를 수립한 이후 1979년 4월에 주한 상주 대사관을 설치하였으며, 현재는 Lars Vargö 대사가 주한 대사로 재임 중이다.

스웨덴은 북한과도 1973년 4월 외교 관계를 수립하였으며, 주 북한 대사관은 1975년 3월 개설했다. 그 동안 주 중국 대사가 주 북한 대사를 겸임해 왔으나 2005년 가을, 평양에 Mats Foyer 대사를 파견하였다.

스웨덴은 현재 남한과 북한 양측과 외교 관계를 수립하고 있는 입장이어서, 남북한 문제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

II. 경제

1. 경제동향 및 전망

가. 개요

세계적인 경기침체 및 금융위기로 0.3%의 물가하락이 예상되는 가운데 2009년 스웨덴의 GDP성장률은 2008년 대비 4.2%의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스웨덴 수출의 80%를 차지하는 OECD국가의 경기 침체로 수출이 큰 타격을 받고 내수 부진으로 그 파급 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은 경기침체는 2010년까지 계속되다가 단계적 콜금리 인하로 2011년 세계 경제가 회복되면서 스웨덴 경기도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스웨덴 정부는 미국 발 금융위기 타개책으로 콜금리를 단기간에 대폭 인하하였으며, 경기 활성화를 위해 2009년과 2010년에 각각 57억 달러와 49억 달러의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등 정부지출을 증가시켰다.

2008년 9월 10일 4.75%이던 콜금리는 4.25%('08.10.8)→ 3.75%('08.10.23), →2.0% ('08.12.5)를 거쳐 2009.2월 0.25%로 대폭 인하되었다.

경기침체 및 금융위기 여파로 민간가계의 소비가 위축되면서 소비양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고소득층의 경우, 유기농 웰빙위주의 소비행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나 중산층 및 저소득층의 경우 할인마트나 온라인쇼핑 이용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한편 금융위기가 실물경제에 영향을 끼치면서 내구재를 비롯한 일반 소비재의 판매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한편 경기위축 및 시장 불확실성으로 신규고용이 현저히 감소하였고, 볼보승용차를 시작으로 트럭, 철강, 광산, 화학, 건설, 제약업 등 전산업계에 걸친 구조조정 칼바람으로 2008년 말 5.9%이던 실업률이 2009. 8월말 기준 8.0%로 급증하는 등 실물경제 위기가 지속되고 있다.

나. 연도별 거시경제 지표

주요 지표	2006	2007	2008	2009(전망)
1인당 GDP(달러)	34,902	36,336	36,371	35,136
실질 성장률(%)	4.3	2.6	-0.2	-4.2
물가 상승률(%)	1.9	2.2	3.4	-0.3
실업률(%)	7.1	6.2	6.1	8.9
수출(십억 달러)fob	148	169	182	150
수입(십억 달러)fob	127	151	165	139
연평균 환율(SEK/1달러)	7.37	6.76	6.58	8.36

자료: 스웨덴 통계청, 스웨덴 중앙은행, 스웨덴 경제연구소
2009.9월말 기준 최신 자료

2. 주요 산업 동향

가. 개요

2008년 GDP 구성에서 각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제조업 20%, 농림수산업 2.3%, 건축업 10%, 무역업 18.6%, 보건의료업 19.4%, 교육연구업 8%, 금융업 11%, 기타 11.7%이다.

스웨덴은 고도의 공업국으로 공업 제품이 생산과 수출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스웨덴은 철강을 기본으로 하는 자동차와 공작 기계를 비롯하여 인테리어 가구가 세계적으로 유명하며 삼림, 철광석 등의 자원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으로는 Volvo, Ericsson, SAAB, ABB사 등이 있다

나. 엔지니어링

엔지니어링 산업은 스웨덴의 가장 중요한 성장 산업으로서 스웨덴 남부 및 중부 지역과 북부 해안 지역에 공장들이 몰려있다. 수송 장비, 기계를 비롯 전자, 금속 제품 등 다양하게 생산하고 있으며 전자 기술 그룹인 ABB사를 비롯 스웨덴을 대표하는 세계적 규모의 기업으로는 베어링 생산 업체인 SKF, 가전 제품 생산 업체인 일렉트로룩스, 광산 및 건설 장비 생산 업체인 ATLAS COPCO사 등이 있다.

다. 화학

화학 공업 제품은 플라스틱 및 고무 제품을 합하여 스웨덴 산업 생산의 약 10%를 점하고 있는 주요 산업이다. 화학 제품 중 가장 광범위하게 발달된 세부 산업은 의약품으로서 이 분야가 전체 산업 생산의 약 2% 정도를 점유하고 있다.

의약품 외에 에틸렌 등 석유화학 제품을 비롯하여 펄프 부산물, 농화학 제품, 프롬알데하이드, 각종 유기화학 제품 등이 유명하며 알프레드 노벨이 처음 공장을 만든 니트로글리세린 등의 폭약 제조도 유명세를 유지하고 있다.

라. 목재 가공

스웨덴 국토의 약 절반 정도는 삼림으로 뒤덮여 있어서 임산 자원이 풍부하다. 삼림의 절반 정도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으며 1/4정도는 일반 기업이 소유하고 있고 나머지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소유이다. 최근 들어 삼림 자원을 활용한 산업이 크게 발전하고 있는데 SCA사가 대표적인 기업이다.

마. 식품 가공

식품 가공은 중소기업 위주로 발달되어 있는데 이들은 "스웨덴 농민연합회(LRF)" 및 소비자 조합(KF) 등과 같은 생산자 조합들도 포함하고 있다. 식품 분야의 경우 수입이 아직은 수출을 크게 초과하고 있는 실정이나, 국내 식품 가공 산업에 종사 중인 인력은 85,000여명 내외에서 큰 변동이 없는 상황이다.

바. 관광업

1992년 스웨덴 코로나화의 변동 환율제 채택 후 코로나화의 경쟁력이 강화되면서 외국 관광객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스웨덴의 관광수지는 상시적인 적자로서 이는 스웨덴인들의 해외 여행을 통한 지출이 외국인들의 스웨덴 방문에 의한 지출보다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 농림수산업

스웨덴 국토의 약 절반 정도는 삼림으로 뒤덮여 있으며 1/3 이상이 산과 호수로서 실제 경작 면적은 약 300만 헥타르 정도이다. 이는 전체 국토 면적의 약 8%에 불과하며, 국토의 남북 길이가 1,574킬로미터나 되므로 이 양단 간의 농업 조건 또한 천차만별이다. 남부 끝 지방의 경우 경작 가능 일수가 240일인 반면, 북부 끝의 경우 140일에 불과하다. 현재 스웨덴의 농업 종사자 수는 전체 인구의 약 3.2% 정도에 불과한 실정으로 1945년 이래 농업 분야의 기계화가 가속화되어 대규모 전업농이 비교적 잘 발달되어 있다.

3. 지역무역협정 체결현황

가. 국제 기구 가입 현황

- UN: 1946.11.19
- IBRD: 1951. 8.31
- IMF: 1951. 8.31

- EFTA: 1960. 5. 3
- OECD: 1960.12.14(1961.9.30일자 발효)
- CSCE: 1975. 7. 3
- GATT: 1950. 4.30
- NORDIC COUNCIL: 1952
- COUNCIL OF EUROPE: 1949. 8. 3
- EBRD(EUROPEAN BANK OF RECONSTRUCTION & DEVELOPMENT): 1991. 3.28
- EEA: 1994.1.1일부 발효
- EU: 1995.1.1

나. 지역주의 참여 정도

- EEA: 적극 참여
- GATT: 자유무역을 표방하는 GATT와 스웨덴의 입장 일치, 우루과이 라운드 타결에 적극 참여
- OECD: 선진 24개 공업국과 협조 필요성 인정, 대 OECD 교역 비중 80%, 특히 OECD 산하의 국제 에너지 기구(IEA)가 관장하는 에너지 안전 문제와 비 OECD국가의 개발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
- EFTA: 1995년 1월 1일부로 EU 회원국이 됨에 따라 자동 탈퇴
- EU
 - 1990.12: 스웨덴 의회 가입 신청 결의
 - 1991.07: 가입 신청서 제출
 - 1994.02: 공식 가입 협상 개시
 - 1994.11.13: 가입 여부에 대한 국민 투표 실시 결과 52.3% 찬성
 - 1995.1.1: EU 회원국으로 가입

다. EU 회원국

스웨덴은 EU 회원국으로서 단독적으로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할 권한이 없다. EU 집행위가 EU의 27개 회원국으로부터 특정 국가나 지역과의 지역무역협정 협상권을 위임 받아 제 3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절차를 밟고 있으며 체결된 자유무역협정 내용은 EU 27개국 모두에 적용된다.

□ EU의 FTA 정책

EU는 전통적으로 FTA 협상에서 ‘지역 대 지역’ 협상을 선호해왔으며 이러한 시각에서 개별국과의 양자간 협정보다는 지역통합체와의 ‘지역 대 지역 협정’ 체결에 더 중점을 두어왔다. 또한 상호주의에 의거한 FTA 보다는 일방적인 호혜적 특혜협정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1999년을 기점으로 하여 EU의 FTA 정책 방향이 크게 변경되어 ‘지역 대 지역 협정’ 이외에 개별국과의 FTA협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으며, FTA 체결 동기도 정치적 동기와 함께 상업적 동기도 고려하면서 상호주의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이는 이전까지는

EU가 인근 국가의 정치, 경제적 안정 지원을 통해 궁극적으로 EU의 안보를 모색하는 '정치적, 외교적 동기'에 의거하여 인근국과의 FTA를 추진해왔으나 1999년부터는 이와 함께 신흥성장시장을 대상으로 원래 의미, 즉 상업적 의미의 FTA도 병행 추진함을 의미한다.

□ EU의 FTA의 주요 특징

EU는 안보, 외교, 미국 견제 등의 다양한 동기들이 복합되어 다양한 형태의 FTA를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 형태도 FTA, 경제협력협정, 안정화협정, 무역개발협정 등 다양한 명칭으로 추진하고 있다.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를 자국 FTA의 모델로 삼고있는 미국과 달리 단일한 롤 모델은 가지고 있지 않으며 체결한 FTA 별로 내용도 매우 다양하다. 다만 WTO(세계무역기구)로부터 지역무역협정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가능한 FTA에서 양측 상품 무역의 90% 이상의 관세 철폐를 선호하고 있다. 그러나 최빈국과의 협상에서는 이를 고수하고 있지는 않다.

EU는 지난 2006년 10월 '신통상정책'을 선언하면서 FTA 우선추진대상국으로 한국, 인도, ASEAN, 러시아, MERCOSUR, GCC를 선정한 바 있으며 한국, 인도 등과는 협상을 진행중이다. 이외에도 EU는 ACP 국가, Mercosur, GCC 국가, 그리고 일부 발칸 국가와 북아프리카 국가들과 지역 대 지역 차원의 FTA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협상 진행 속도가 부진한 편이다.

III. 무역

1. 수출입동향

가. 스웨덴의 수출입 동향

- 높은 해외 의존도
 - 적은 인구로 인한 협소한 내수 시장을 극복하기 위해 스웨덴 경제는 그 돌파구로 해외 시장을 선택하고 있어 해외 의존도가 매우 높은 실정이다. GDP 대비 연간 수출입 규모가 70% 이상이다. (아래 표 참조)

스웨덴 수출입 규모

구분	2006	2007	2008
GDP(억 달러)	3,819	3,940	4,335
수출입 규모(억 달러)	2,742	3,199	3,464
GDP 대비 수출입 규모	71 %	81%	79%

자료: 스웨덴 중앙은행, 스웨덴 경제연구소, 스웨덴 통계청, 2009.8월말 기준

- 주요 교역국
 - 유럽 국가와 미국에 집중
 - 주요 수출국(비중): 독일(10.4%), 노르웨이(9.4%), 미국(7.6%),
 - 주요 수입국(비중): 독일(18.4%), 덴마크(9.1%), 노르웨이(8.6%)

나. 스웨덴 수출입 통계

최근 3년간 스웨덴 교역 동향

(단위: 백만 크로나)

연 도	수 출	수 입	수 지
2006	1,089,095	939,730	149,365
2007	1,140,724	1,020,271	120,453
2008	1,195,300	1,083,700	111,600

달러화 대비 평균 환율: SEK 6.58 SEK(2008), SEK 6.76 (2007), SEK 7.37 (2006)

자료: 스웨덴 통계청, 2009.8월말 기준

□ 스웨덴 수출입 현황

주요 수출국

(단위: 백만 크로나, %)

순위	국가	2008	2007
	총계	1,195,300	1,140,724
1	독일	118,966	108,069
2	노르웨이	106,923	99,370
3	미국	86,470	100,896
4	덴마크	84,901	78,339
5	영국	81,470	78,426
6	핀란드	72,726	68,040
7	네덜란드	57,800	52,229
8	프랑스	56,718	53,685
9	벨기에	52,453	49,828
10	이탈리아	36,027	36,720

주: 달러화 대비 평균 환율: SEK 6.58 (2008), SEK 6.76 (2007)

자료: 스웨덴 통계청, 2009.8월말 기준

주요 수입국

(단위: 백만 크로나, %)

순위	국가	2008	2007
	총 계	1,083,700	1,020,271
1	독일	187,874	168,623
2	덴마크	93,334	90,610
3	노르웨이	87,618	80,225
4	영국	70,305	60,620
5	네덜란드	62,709	58,907
6	핀란드	62,015	55,286
7	프랑스	50,376	44,476
8	벨기에	43,055	39,325
9	이탈리아	36,268	31,806
10	중국	35,655	28,996

주: 달러화 대비 평균 환율: SEK 6.58 (2008), SEK 6.76 (2007)

자료: 스웨덴 통계청, 2009.8월말 기준

2. 한국과의 교역동향 및 특징

가. 상호 보완적 수출입 산업 구조로 교역 확대 잠재력 보유

- 스웨덴은 우리나라와 상호 보완적 수출입 산업 구조를 이루고 있어 교역 규모 확대 잠재력이 있다.
- 특히, 항공기, 의약품, 통신 장비 등 기술 집약적 고부가가치 생산품은 수출하고, 일용 소비재는 수입하고 있으며, 주력 상품의 부품/소재, 해외 조달 비중이 높은 국가이다.

나. 스웨덴-한국 교역 현황

- 대 스웨덴 주요 수출 품목으로는 선박, 무선통신기기, 승용차 등이 있으며, 대 스웨덴 주요 수입 품목으로는 중후판, 의약품, 원동기 등이 있다.
- 한국은 2008 년도 스웨덴의 주요 수출국 중 22 위로 스웨덴 수출 시장 점유율 0.7%를 기록했으며, 또한 2008 년도 스웨덴의 주요 수입국 중 한국은 28 위로 스웨덴 수입 시장 점유율 0.6%를 기록했다.

다. 주요 교역 품목

대 스웨덴 수출 동향

(단위: 천 달러)

순위	품목 명	2007 금액	2008 금액
	총계	950,046	935,038
1	선박	151,396	254,421
2	무선전화기	106,897	98,801
3	승용차	177,110	84,704
4	아연도강판	43,586	57,986
5	유선전송장치	24,622	39,401
6	타이어	36,891	34,441
7	무선통신기기부품	20,341	25,551
8	축전지	17,223	24,040
9	합성수지	23,222	22,575
10	자동차부품	27,898	21,134

자료: KOTIS, 2009.8월말 기준

대 스웨덴 수입 동향

(단위: 천 달러)

순위	품목 명	2007 금액	2008 금액
	총계	1,192,797	1,299,336
1	중후판	27,698	84,017
2	의약품	63,048	69,073
3	원동기	53,991	56,430
4	화학기계	39,169	42,794
5	기타철강제품	35,192	41,885
6	열연강판	70,231	41,776
7	승용차	42,296	37,335
8	계측기	37,158	35,893
9	건설중장비	29,486	32,702
10	기타자동차	38,812	30,292

자료: KOTIS, 2009.8월말 기준

라. 최근 무역 현황

(단위: 천 달러, %)

연도	수출		수입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2005	904,361	23.5	979,576	28.1
2006	857,824	-5.1	987,830	1.2
2007	950,046	10.8	1,192,797	20.7
2008	935,038	-1.6	1,299,336	8.9
2009(1-7월)	250,000	-57.9	638,000	-21.7

자료: KOTIS, 2009.8월말 기준

3. 수입규제제도

가. 수입규제조치

EU 회원국은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단독으로 제 3국에 대해 수입 규제 조치를 취할 수 없으며 제3국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는 EU 를 통해 취하고 있다. 즉, 수입 규제 조치는 EU 차원에서 결정되며 EU 집행위가 타당성을 조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결정된 조치는 EU 전 회원국에서 동시에 이행된다. 역외국 제품에 대한 수입관세율은 물론이고 반덤핑조치, 상계관세 조치, 세이프가드조치, 수입쿼터 조치 등도 EU의 27개국 모두가 동일하게 취해지고 있다.

□ 반덤핑 관세

수출국의 기업이 덤핑 가격으로 수출하여 수입국 산업에 피해를 초래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현재 EU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수입 규제 조치이다.

EU 집행위는 EU 기업으로부터 한 일정 수출국 기업이 덤핑 수출을 하고 있어 EU 산업이 피해를 받고 있다는 제소를 받으면 반덤핑 규정(384/96/ec)에 의거, 조사 후 반덤핑 조치의 타당성 여부를 평가한다. 반덤핑 관세 부과 결정을 좌우하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 덤핑 사실의 존재: 해당 수출국(제 3 역외국) 기업의 EU 수출가가 자국 내수 가격보다 낮을 때 덤핑으로 간주한다.
- EU 산업에 피해 존재: 덤핑 수입으로 EU 역내 산업이 상당한 피해를 받고 있음이 입증될 때 EU 산업에 피해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예컨대 EU 역내 산업이 시장 점유율을 상실하고 EU 생산자가 생산가를 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생산, 판매, 수익, 생산성 등에 부정적인 요인이 될 경우이다.
- EU의 전반적 이익: 반덤핑 조치를 취할 때 드는 비용이 그로 얻는 이익과 불균형을 이루지 않을 때 반덤핑 조치가 EU의 전반적 이익을 보호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 EU 집행위는 석탄과 철강제품에 대해서는 잠정 또는 확정 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으나 석탄과 철강제품 이외 상품의 경우에는 이사회에 의해 확정 반덤핑 관세 부과가 결정된다.

- EU 집행위는 덤핑 제소 접수일로부터 45일 내에 사전 조사, 공식 조사를 개시할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타당성을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거나 제소업체(들)의 생산이 EU 총 생산의 25% 미만일 경우에 공식 조사가 거절된다

□ 반보조금(Anti-subsidy) 및 상계 관세

EU는 WTO의 협정 내용을 EU 보조금 규정에 통합하여 1995년 1월 1일부터 수출 보조금을 받고 수출하는 제품에 대해 반 보조금 조치, 즉 상계관세 조치를 적용하고 있다. EU 규정은 EU 역외국 정부의 수출 보조금을 받고 EU에 수출되는 상품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하는데 상계 관세 부과 요건은 다음과 같다.

- 수출 보조금 또는 한 일정 산업, 일정 기업에 한정된 보조금 지급 사실 존재
- EU 산업에 물질적 피해(material injury) 초래: 수출 보조금을 받고 싼 가격으로 들어온 수입 제품으로 인해 EU 역내 산업이 시장 점유율을 상실하고 EU 생산자가 생산가를 줄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생산, 판매, 수익, 생산성 등에 부정적인 요인이 될 경우
- EU 연합의 전반적 이익: 상계관세 조치를 취할 때 드는 비용이 그로 얻는 이익과 불균형을 이루지 않을 때
- 반덤핑 관세와 마찬가지로 EU 집행위가 조사하고 잠정 조치를 취한다. 제소와 조사 절차는 반덤핑 절차와 유사하다.

□ 세이프가드 조치

비록 수입이 공정하게 이루어졌으나 예외적으로 급작스러운 대폭의 수입 증가가 일어나 EU 역내 산업과 기업, EU 공익에 위협적인 요인이 될 때 취하는 조치로, EU 집행위는 회원국으로부터 요청을 받거나 또는 자발적으로 세이프가드 조사를 한다. 반덤핑이나 상계 관세처럼 기업이 직접 세이프가드 조치의 도입을 요청할 수 없다.

세이프 가드 조치로는 수입 쿼터로 수입 물량을 제한하는 조치와 감시 조치가 있는데 감시 (surveillance) 조치는 엄격한 의미에서 수입 제한 조치가 아니라, 수입 추이를 일일 점검하는 것으로, 해당 제품의 수입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수입 라이선스를 요구하고 있다.

나. 수입 쿼터 제도

현재 EU는 공산품에 대해 수입 쿼터 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

다. 기타 교역관련 규정

수산물이나 일부 농산물 등에 대해서는 위생 및 인체 건강 보호를 이유로 특정 지역이나 특정 조건에서만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 이들 품목 역시 EU 관보를 통해 발표되고 있다.

아울러 약간의 수정을 통해서 군사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첨단기기에 대해서는 그 거래를 역시 제한하고 있다.

라. 수입 관리

스웨덴은 기본적으로 자유무역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특별한 수입 규제 사항은 없으며 평균 관세율은 4.8% 이다.

국제 협약 준수 등 자유무역의 확대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으며 GATT 협약국임과 동시에 EU, OECD 회원국으로서 EU, EFTA역내 유통은 무관세로 재화의 유통이 자유로운 반면, 국민 보건 및 위생을 목적으로 식료품의 경우 사전 수입 허가를 요하며 통관 검사(샘플 검사) 등이 다소 까다롭다.

마. 수입 제한

수입 제한은 2가지 경우로 첫째, 공중 보건이나 공공 안전상 전염성 있는 동물이나 식물의 질병이 스웨덴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과 둘째, 경제 및 무역 정책상 불가피한 것 등이다.

4. 대한수입규제 동향

2009년 5.20일 기준, EU로부터 반덤핑 규제를 받고 있는 우리나라 제품은 다음과 같은 5개 품목이다.

구분	조치 유형	대상 품목
규제 중	반덤핑 관세	폴리에스테르 단섬유(PSF), PET칩, 양문형 냉장고, 실리콘(우회 덤핑 관세), 철강제 관련결구류

5. 관세제도

가. 개요

스웨덴은 EU 회원국으로서 EU 관세 제도를 따르고 있다. 스웨덴은 EU 공동 관세 제도가 도입된 지난 1968년부터 여타 EU 회원국과 동일한 관세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 EU의 주요 관세 제도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U는 일반적으로 GATT(현 WTO) 가입국뿐만 아니라 비가입국에도 협정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EU와 관세 동맹 체결 여부에 따라 일방 또는 양자간 특혜 관세 조치를 취하고 일부 제품에 대해 수입 관세의 감면, 면제 등 관세 혜택을 부여하기도 한다.

관세는 EU가 정하여 매년 발표하는 EU 관세율 표에 의하여 각 회원국 세관 당국이 징수한다. EU 관세율표는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제품의 관세 분류 방식인 HS(Harmonized-System) 분류 체계를 기초로 EU가 공동으로 정한 통합분류(CN) 방식에 의해 분류되며 관세율에는 수입 부담금과 농산물의 경우 공동 농업 정책에 의한 농업 부담금 등이 포함된다.

EU 집행위는 매년 관세율 표를 EU 관보를 통해 공표한다. 일반적으로 관세율에는 증가 관

세(Ad-valorem Tariff)가 적용되고 석탄, 농산물 일부, 식품, 영화 필름 등에는 종량세(Specific Duties)가 적용되며 국제 가격의 변화에 대하여 일정 수준의 관세 유지를 목적으로 담배, 과일, 카펫 및 시계 일부 등에는 종량세로 관세의 상하한을 설정한 후 그 범위 내에서 증가세를 부과하는 선택 관세(Alternative Tariff)가 있다. 또한 계절에 따라 가격 변동이 심한 과일, 채소, 화훼류 등의 상품에 대해서는 관세율이 신축적으로 조절되는 계절 관세(Seasonal Tariff)가 적용된다. 한편, 농산물에 대해서는 관세뿐만 아니고 수입 부과금(Import Levy)을 부여한다.

한편, EU는 일년에 상, 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역내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 가거나 일시적으로 수요가 급증하여 EU 역내 생산만으로는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는 품목에 대해 일시적으로 관세 부과를 면제해주고 있다. 이들 품목은 EU 관보를 통해 발표된다.

나. 통관 시 적용되는 규정

1) 상품 분류 번호

모든 상품의 수출입시, 통관 서류에 상품 분류 번호가 기재되어야 하며 상품 분류 번호에 따라 해당 품목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스웨덴에서는 모든 EU 회원국과 마찬가지로 8자리의 EU 상품 분류 제도(CN CODE)가 적용된다. 그러나 필요에 따라 수입시 8단위보다 더 상세히 분류된 10 자리의 세분 번호가 적용될 수 있다. CN CODE 8자리 상품 분류 번호의 앞 6 자리까지는 HS 코드와 일치한다. 상품 분류 번호에 따라 관세율이 다를 수 있으므로 상품 분류 기재 시 정확한 상품 분류 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2) 원산지 규정

상품의 원산지 규정은 관세와 무역에 관한 정책적 결정을 수행하는 수단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원산지 규정 또한 스웨덴에 국한된 자국 원산지 규정이 없으며 EU의 원산지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모든 상품의 원산지가 중요성을 갖는 것은 관세율을 결정하는데 기초 자료가 될 뿐 아니라 GSP 수혜, 반덤핑 관세, 수입 물량 제한 조치, 심지어는 수입 금지와 같은 무역 정책적인 조치 적용에 근거 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EU의 원산지 기준은 매우 복잡하여 품목별로 공정기준, 부가가치 기준이 병행하여 적용되고 있다.

3) 관세 부과 가액

상품의 실질 거래 가격, 즉 송장 금액을 기준으로 관세가 부과된다. 단, 인도 조건에 따라 송장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송장 금액과는 별도로 관세 부과 가액 산정 시 반영되는 요소들이 있다. 운송료, 보험료, 로열티, 라이선스 수수료, 연구개발비 등이 그러한 것들이다.

통관 시 관세 이외에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율은 회원국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며 스웨덴 경우에는 25%가 적용됨)와 일부 특정 제품(담배, 주류, 석유 등)에 대해서는 특별세(excise)가 부과된다(또한 특별세의 세율도 회원국마다 차이가 있다).

4) 일반특혜관세제도(GSP)

개도국의 수출 확대와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도국산 제품에 대해 낮은 수입관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로, 176개 개도국에 대해 이러한 관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EU로부터 GSP 혜택을 받고 있지 않다.

GSP 제도는 표준 GSP, GSP+, 최빈국에 대한 무세혜택 세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표준 GSP제도는 176개 수혜대상국을 대상으로 약 6,400개 품목에 대해 제공되는 일반 GSP 제도이며, GSP+ 제도는 표준 GSP 제도에 추가하여 노동권 보호를 포함하여 지속 가능한 개발을 추진하는 국가에 대해 추가적으로 혜택을 더 제공하는 것이며, 최빈국에 대한 GSP 제도는 역시 표준 GSP 제도에 추가하여 50개 최빈국에 대해 무세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현행 EU의 GSP 제도는 2009년부터 2011년간 3년 동안 적용되고 있다.

6. 주요인증제도

가. CE 마킹 제도

공산품에 대해 EU 회원국 전체에 적용되는 강제 기술규격 인증으로 27개 EU 회원국과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의 EFTA 국가에 수출하려면 다음과 같은 22개 카테고리의 품목에 CE 마킹 지침(93/68/EEC)에 의거, CE 마크를 획득, 부착해야 한다.

CE 마킹 대상 품목 및 규정 지침

품목	규정 지침
가스기기(Appliances Burning Gaseous Fuels)	90/396/EEC
사람수송용 케이블(Cableway Installation to Carry Persons)	2000/9/EC
저압 전기 기기(Low Voltage Electrical Equipment)	73/23/EEC
건설자재(Construction Products)	89/106/EEC
폭발용 기기 및 보호제품(Equipment and Protective System for used in potentially explosive Atmospheres)	94/9/EC
민간용 폭발물(Explosives for Civil Uses)	93/15/EEC
온수보일러(Hot Water Boiler)	92/42/EEC
가전 냉장·냉동고(Household Refrigerators & Freezers)	96/57/EC(에너지효율지침)
승강기(Lift)	95/16/EC
기계(Machinery)	98/37/EC
선박(Marine Equipment)	96/98/EC
의료기기(Medical Devices)	93/42/EEC
의료용 임플란트(Active Implantable Medical Devices)	90/385/EEC
시험관 치료용 기기(In Vitro Diagnostic Medical Devices)	98/79/EC
수동저울(Non-automatic Weighing Instruments)	90/384/EEC
무선전신 및 통신 말단기기 (Radio Equipment & Telecommunication Terminal Equipment)	99/5/EC
개인보호장비(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89/686/EEC
단순압력용기(Simple Pressure Vessels)	87/404/EEC
압력기기(Pressure Equipment)	97/23/EC
여가용 보트(Recreational Craft)	94/25/EC
장난감(Toys)	88/378/EEC
Trans-European Conventional Rail System	96/48/EC, 2001/16/EC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안전규격이 적용되고 있다.

- 전자파적합성 지침(89/336/ EEC)
 - 모든 전자전기 제품은 전자파 적합성 지침의 기술 기준을 준수하고 CE 마킹을 획득해야 한다.
- 결함 제품에 대한 책임
 - 85/374/EEC(1999/34/EEC 수정 지침) 지침에 의거, 제조자(수입, 유통자 포함)는 결함이 있는 제품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 일반 제품 안전
 - 92/59/EEC 지침에 의거, 제조자(수입, 유통업자)는 시판 상품에 대한 안전을 보장해야 하고 위험한 제품을 시장에 내놓아 인체나 환경에 손상을 끼쳤을 때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 환경 규격
 - 2000/14/EC 지침에 의거하여 실외에서 사용되는 기기는 동 지침의 소음 발생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나. 에코 라벨

에코 라벨은 친환경적 제품에 부여하는 라벨로 자율적 라벨이다. 에코 라벨은 1993년 이후 적용되고 있는 라벨로 2009년 5월말 기준 19개 품목군에 대해 기준이 제정되어 있으며 8개 제품군에 대해 기준 제·개정이 추진 중이다. 그러나 이외에도 많은 품목군에 대하여 EU 집행위와 관련 업계 단체들이 에코 라벨 기준 제정의 가능성을 검토 중이며 제정된 품목도 계속해서 기준 수정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 기준 기 제정 품목 : 다목적 세제 및 위생 시설 세척제, 식기세척기용 세제, 손씻기용 세제, 세탁용 세제, 비누와 샴푸, 식기 세척기, 전구, PC, 휴대용 컴퓨터, 냉장고, TV, 진공 청소기, 세탁기, 복사용지, 토양개선제, 신발, 관광사이트서비스, 관광시설 서비스, 형광등
- 기준 제·개정 추진 품목 : 히트펌프, 인쇄물, 목재 가구, 티슈, 매트리스, 바닥 깔개, 실내 페인트 및 안료, 섬유 제품 등

다. 에너지 라벨

에너지 소비율에 따라 A-G까지 에너지 효율 등급을 표시해야 한다. A는 에너지 효율성이 가장 우수한 것을 의미하며 G는 가장 낮은 것을 의미한다. 에너지 효율성을 표시해야 하는 에너지 라벨 대상 품목은 냉장고, 냉동고, 냉장-냉동고 콤비, 세탁기, 건조기(electric tumble dryers), 세탁기-건조기 콤비, 식기 세척기, 램프, 전기 오븐, 에어컨 등으로 대상품목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한편 GEEA의 에너지 라벨제도 역시 적용되고 있다. GEEA(Group for Energy Efficient Appliances)란 네덜란드, 덴마크, 스위스, 프랑스 등 유럽 회원국들이 운영하는 에너지 절약 제품 보조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포럼이며 GEEA 규격에 적합한 제품은 GEEA의 에너지 라벨을 사용할 수 있다.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표시 제도

	□ 개요 에너지 소비 효율에 따라 A~G까지 Energy 효율 등급 라벨 표시 및 최저 효율 기준, 적용 에너지 효율 등급, 연간 에너지 소비량 등 표시 □ 대상 품목 ○ 라벨 표시: 냉장고, 냉동고, 세탁기, 식기세척기 등(10품목) ○ 최저 효율: 냉장고, 냉동고, 냉동냉장고, 보일러, 안정기 등(5품목) □ 시행 기관 EU위원회(EU Commission) □ 근거 법령 에너지 라벨링 지침(Council directive/92/75/EEC, 1992)
---	--

▶GEEA

	□ 개요 스위스, 독일 등 유럽 9개국이 운영하는 대기 전력 감소를 위한 에너지 절약 제품 보급 프로그램이며 Energy라벨 사용 □ 대상 품목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팩시밀리, 복사기, 스캐너, 복합기, 텔레비전, 비디오, 오디오, 배터리 충전기 등(19품목)
---	--

▶Energy 2000

	□ 개요 대기 전력 절감형 제품을 보급하는 유럽의 대표적 프로그램 GEEA와 동일 기준을 적용하며 같은 Energy 라벨 사용 □ 대상 품목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팩시밀리, 복사기, 스캐너, 복합기, 텔레비전, 비디오, 오디오, DVD플레이어 등(15품목) □ 시행 기관 스위스 에너지부(SFOE: The Swiss Federal Office of Energy)
---	--

대상 품목은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팩시밀리, 복사기, 스캐너, 복합기, 텔레비전, 비디오, 오디오, 배터리 충전기 등 19개 품목으로 GEEA의 회원은 다음과 같다.

○ 정회원

- Switzerland : The Swiss Federal Office of Energy (SFOE)
- Denmark : The Danish Energy Authority (DEA)

- Netherlands : The Netherlands Agency for Energy and the Environment (SenterNOVEM)
- Germany: The German Energy Agency (dena) / Gemeinschaft Energielabel Deutschland (GED)
- 준회원
 - Sweden: The Swedish National Energy Administration (STEM)
 - Austria: The Austrian Energy Agency (E.V.A.)
 - France: The French Agency for Energy and the Environment (Ademe)

7. 지적재산권

가. 개요

스웨덴은 EU회원국으로서 EU의 지적재산권 제도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EU에서 지적 재산권 보호제도를 운영하는 주체는 크게 3가지가 있다. 각 회원국 정부, EU 집행위 및 지적 재산권 보호를 위해 특별히 설치되어 있는 제3의 기관인 유럽특허청이 그것이다.

EU 집행위는 유럽 공동체 상표, 유럽공동체 디자인, 저작권, 저작인접권 등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각 회원국 정부는 이를 이행하는 동시에 여타 지재산 보호에 대한 정책 결정 및 이와 관련된 법규를 자체적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이에 따라 EU 차원에서 통일된 제도의 경우에도 자국에만 적용되는 별도의 제도를 병행 설치하는 경우도 있다.

나. 특허권

유럽에서 특허를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먼저 스웨덴을 포함하여 각 EU 회원국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특허제도이며, 둘째로는 유럽특허청을 통해 특허를 허락 받는 방법이다. 유럽특허청을 통해 취득하는 유럽특허제도의 경우 출원인이 지정하는 여러 국가에서 특허를 취득할 수 있다. 그러나 유럽 특허제도는 27개 EU 회원국 전역에서 자동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 두 가지 제도와 별도로 현재 공동체특허제도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공동체 특허제도란 하나의 출원을 통해 등록받은 특허로 EU 회원국 전체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특허의 무효 또는 침해에 대한 재판도 공동체 특허법원이 담당하는 개념이다.

다. 상표권

스웨덴을 포함하여 EU에서 상표를 보호받기 위한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이다. 먼저 각 개별 국가의 상표보호 담당관청을 통해 상표를 출원하고 등록한 후 권리를 행사하는 소위, 국별 상표권이다. 다음으로는 유럽공동체 상표청에 상표를 출원하고 심사를 거쳐 등록된 상표를 이용하는 유럽공동체상표이다.

공동체 상표제도는 회원국 특허청이 자국 내에서만 효력을 갖는 상표권을 부여하고 있는 기존의 상표제도와 병행하도록 하여, 기존의 국가별 등록제도와 공존하고 있다. 공동체 상표

로 등록될 수 있는 표장은 문자, 도형 등은 물론이고 상품이나 상품의 포장인 입체상표, 소리상표, 냄새상표, 동작상표 등도 등록이 가능하다. 공동체 상표에 대해서는 EU 회원국내에서 독점 배타적인 권리가 부여되고 등록후 10년간 유효하며 계속해서 갱신등록이 가능하다. 공동체상표 출원은 공동체 상표청, 회원국의 특허청, 또는 베네룩스 상표청을 통해 출원이 가능하며 EU 회원국 언어로 출원하되, 공동체 상표청 공식언어인 영어, 불어, 독일어,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중 하나를 제2 언어로 지정해야 한다.

라. 디자인

EU는 디자인의 경우에도 회원국 전역에서 보호될 수 있는 공동체 디자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공동체상표청이 업무를 담당하는데, 공동체 디자인은 물품 자체의 선, 윤곽, 색채, 형상, 질감, 재질 및 장식의 특징 등을 디자인으로 정의하고 있다. 보호기간은 등록 디자인이 출원일로부터 5년간 단위로 연장하여 최장 25년까지 보호된다.

마. 저작권

EU는 문화적 또는 예술적 작품의 저작권을 작가의 사후, 또는 저작자가 익명이거나 가명인 경우 일반대중이 그 작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된 다음해부터 70년간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영화 및 시청각 작품도 감독 등 저작자의 사후 70년 동안 보호되도록 규정하였다. 음반제작권은 보호기간이 음반에 고정된 때로부터 50년간이다.

저작자에 대한 재판매권도 보호되어 판매가가 일정 금액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판매가격에 대한 재판매권 부과 비율을 정하고 있으며, 이 재판매권 보호기간도 저작자 사후 70년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컴퓨터 프로그램의 보호기간 역시 저작자 사후 또는 최초 공개된 이후 70년간 보호된다.

8. 통관/운송

가. 통관 절차

1) 서류 절차

통관 시에는 수입 신고서와 세관 신고서를 화물 송장 사본 1부와 함께 제출하는데 스웨덴 국적의 회사는 세관 신고서를 조금 더 늦게(약 14일) 제출해도 되는 특별 허가를 취득할 수 있다. 각종 특혜 협정 즉, EFTA협정이나 EU조약 등과 관련된 품목일 경우에는 원산지 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2) 물품 검사

세관에서는 화물 송장 등의 각 항목별 내용에 대한 정확성 여부를 심사한다. 물품 검사는 보통 세관이 정한 시간에 세관 통제 구역인 부두나 창고 등 지정된 장소에서 하며, 플랜트 설비, 정밀 기기, 귀중품, 긴급 수요 물자, door to door로 운반되는 경우와 같이 세관이 지정한 장소에서 검사가 곤란한 물품에 대해서는 세관원이 현장에 파견되어 검사한다.

나. 운송

1) 주요 공항

주요 공항 및 국외선 이용자수(2008)

(단위: 천 명)

공항 명	이용자 수
스톡홀름-알란다(Arlanda)	12,842
스톡홀름-브롬마(Bromma)	138
연쇄핑(Jonköping)	25
칼마르(Kalmar)	25
칼스타드 (Karlstad)	57
요테보리-란드웨테르(Landvetter)	3110
노르쇄핑(Norrköping)	84
말외-스투럽(Sturup)	737

자료: 스웨덴 통계청, 2009년 8월 말 기준

2) 주요 항구

주요 항구 및 물동량(2008)

(단위: 천 톤)

항구 명	총 물동량
요테보리 (GÖTEBORG)	39,912
브루피요르덴 (Brofjorden)	18,591
헬싱보리(HELSINGBORG)	7,563
트렐레보리 (TRELLEBORG)	11,381
룰레오(LULEA HAMMAR)	7,486
말외 (MALMÖ)	9,003
스톡홀름 (STOCKHOLM)	5,067

자료: 스웨덴 통계청, 2009년 8월 말 기준

다. 물류 비용

1) 컨테이너 내륙 운송비

- FEU 기준 (FEU: 40 피트 컨테이너):
- 스톡홀름 공단 → 요테보리 항구: 607.8 달러

2) 컨테이너 해상 운송비

- FEU 기준 (FEU: 40 피트 컨테이너):
- 요테보리 항구 → 중국 상해: 940 달러
- 요테보리 항구 → 미국 LA: 2,371 달러

IV. 투자

1. 투자환경

가. 투자지로서의 장점

스웨덴은 국내시장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높은 기술 수준과 활발한 대외 교역국으로 가격 경쟁력을 갖고 있는 고부가 가치 제품 생산을 위해서라면 투자할 가치가 높은 곳이다.

우선 우편, 통신 등 사회 간접 자본 이용이 손쉬우며 도시 근교에 오피스 빌딩가를 지어놓고 은행, 우체국 등 기반 설비를 해놓은 비즈니스 단지가 산재해 있어 업체 신설이 매우 용이하다. 또한 개인, 기업에 대한 정보가 일목요연하게 통제되고 있어 신용 사회 분위기가 정착되어 있으며, 해당 규정에 맞기만 하면 모든 것을 규정대로 처리해 주기 때문에 예상 외의 난관에 부딪히는 일은 거의 없다. 이외에도 철강, 화학, 목재 공업 등이 발달되어 있어 기초 원료 조달이 용이하며 광활한 국토와 풍부한 수량 그리고 발달된 사회 간접 시설로 인해 생산 여건도 매우 양호한 편이다.

스웨덴의 주요 시장은 독일을 비롯한 EU 국가이며, 이는 총 교역량의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스웨덴 자체가 대외 의존형 경제이므로 교역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과 매너는 상당히 세련되어 있다. 또한 그간 쌓아온 국제 사회에서의 신임도와 기술 제품 수출국으로서의 명성 등을 고려할 때, 가격 경쟁력을 갖춘 Made in Sweden이라고 한다면 판로 개척에 상당히 유리할 것으로 분석된다.

나.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개방화 정도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으며,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서도 국내 업체와 동일한 대우(지원) 제공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스웨덴 북부 지방에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이 지역 투자에 대한 몇 가지 지원 제도가 있다.

다. 투자지로서의 단점

하지만 이 같은 장점 외에도 다음과 같은 단점들도 역시 고려해야 한다.

먼저, 고용 비용이 매우 높다. 고용주세 납부로 인해 급여 수준이 우리나라보다 월등히 높고, 일단 채용하면 해고가 용이치 않다. 근로자가 중대한 잘못을 저지르거나 업무에 적합한 능력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해고가 어렵다. 또한 교통, 통신을 비롯한 제반 물가 수준이 높은 편이다. 따라서 투자액 대비 생산되는 제품의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에 한하여 투자해야 할 것이다.

2. 외국기업 투자동향

가. 투자 통계

스웨덴은 인구 900만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스웨덴에 유입된 외국인 직접 투자 금액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

급성장하는 세계 경제의 글로벌화와 스웨덴의 자유무역(Liberalization) 및 규제 완화에 발맞추어 1990년대 후반 스웨덴에 유입된 투자 규모는 강세를 보이기 시작하였으며, 지난 10년간 외국인 소유 자산 주식도 7배 이상의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나. 외국인 직접 투자 국가별 현황

(단위: 백만 크로나)

구 분	2006	2007	2008
중 국	0	0	326
일 본	36	0	716
한 국	0	0	0
미 국	15,987	39,622	35,701
영 국	65,015	- 1,913	2,621
재 투 자	21,520	51,983	96,380
총 계	200,992	149,212	266,486

주: 마이너스(-) 표시는 투자 상환액이 투자액을 초과함을 나타냄.

연평균 대미 환율(1 US\$ = SEK) 2006: 7.37 SEK, 2007: 6.76 SEK, 2008: 6.58 SEK,

자료: 스웨덴 중앙은행(www.riksbanken.se), 통계청, 2009년 8월 말 기준

다. 외국인 직접 투자 산업별 현황

(단위: 백만 크로나)

구 분	2006	2007
농림수산업	0	0
광산업	- 2,041	- 705
제조업	31,375	- 27, 470
전기,가스, 수력발전	24,600	- 11,329
건설업	1,944	134
무역, 레스토랑, 호텔	974	209
우편, 통신업	12,021	- 7,809
금융업	52,702	85,602
공공 분야	1,305	559
기타	6,252	5,325
재투자	36,424	41,214
총 계	165,756	85,730

주: 마이너스(-) 표시는 투자 상환액이 투자액을 초과함을 나타냄

연평균 대미 환율(1 US\$ = SEK) 2006 : 7.37 SEK, 2007 : 6.76 SEK

자료: 스웨덴 중앙은행(www.riksbanken.se), 통계청

2009.8월말 기준 최신자료(2008 자료 미발표)

라. 주요 외국 투자 기업

스웨덴은 북유럽과 EU 시장의 주요 연결 통로로 투자자들에게 끊임없는 관심을 모으고 있으며, 현재 다양한 부문 및 다양한 국가의 기업이 스웨덴에 지역 본부를 설립하였다.

- 지역 본부를 설립한 글로벌기업
- General Motors (미국)

- Ford Motor (미국)
- Mitsui (일본)
- Procter & Gamble (미국)
- E.ON (독일)
- Unilever (네덜란드)
- Royal Ahold (네덜란드)
- Volkswagen (독일)
- Hitachi (일본)

3. 우리기업 투자동향

가. 한국 기업 진출 현황

스웨덴에 진출한 한국 기업으로는 삼성전자, LG전자, 대한항공 Cargo, 현대모비스, 한국 타이어사가 있다. 삼성전자와 LG전자, 기아자동차, 현대모비스사는 현지 법인 형태로 진출해 있으며, 대한항공과 한국타이어는 지사 형태로 진출해 있다.

나. 한국 기업 대 스웨덴 투자 금액

스웨덴에 진출한 삼성전자, LG전자, 기아자동차, 대우전자 등 한국 기업들이 밝힌 총 투자 금액은 약 2,300만 달러 내외로 추산되고 있으나 이는 모두 2004년 이전에 실행된 것이며, 스웨덴 중앙은행의 최근 통계에 따르면 2004~2008년 중 한국의 대 스웨덴 투자 금액은 100만 달러 이하로서 대 스웨덴 투자 통계에 미계상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다. 현지 진출 기업

회사 명	삼성전자 북구 현지법인		
진출 국가	스웨덴	진출 지역	전체(전체)
업체 명(영문)	Samsung Electronics Svenska AB		
Address	Kanalvagen 10A, Upplands Vasby, Sweden		
Tel	(46-8) 590-96600	FAX	(46-8) 590-96650/60
E-mail	dennis.ko@samsung.se	Home Page	http://www.samsung.se
Press	고주현		
업종(대분류)	도·소매업(무역업)		
업종(중분류)	도·소매(수리 포함)		
업종(소분류)	전자·통신		
취급 분야	전자제품 판매업-전자제품(가전, 통신, 정보)		
진출 형태	법인-단독		
진출 형태(기타)	현지 법인		
진출 연도	1992 년	종업원 현황(한국: 외국)	8 : 254 명
자본금	US\$ 13,000,000	투자 금액	US\$ 13,000,000
연간 매출액	US\$ 300,000,000		
국내 모기업	삼성전자		
Address	서울 중구 태평로 2가 250번지 삼성빌딩		
Tel / Fax	(02) 727-7114 / (02) 727-7985		

회사 명	기아자동차 스웨덴 현지법인		
진출 국가	스웨덴	진출 지역	전체(전체)
업체 명(영문)	KIA Motors Sweden AB		
Address	Kanalvagen 12, 194 61 Upplands Vasby, Sweden		
Tel	(46-8) 400 44352	FAX	(46-8) 400 443 90
E-mail	seonkil@kia.se	HomePage	rlahttp://www.kia.se
Press	김선길		
업종(대분류)	도·소매업(무역업)		
업종(중분류)	도·소매(수리 포함)		
업종(소분류)	자동차		
취급 분야	자동차		
진출 형태	법인-단독		
진출 형태(기타)	현지법인		
진출 연도	1997년	종업원 현황(한국: 외국)	1:31명
국내 모기업	기아자동차		
Address	서울 서초구 양재동 231		
Tel / Fax	(02) 3464-1114		
회사명	LG전자 북구 현지법인		
진출 국가	스웨덴	진출 지역	전체(전체)
업체 명(영문)	LG Electronics Nordic AB		
Address	Esbogatan 18 Akalla P.O. Box 83 SE-164 94 Kista, Sweden		
Tel	(46-8) 566-41500	FAX	(46-8) 566-41599
E-mail	alanssong@lge.com	Home Page	http://nordic.lge.com
Press	송광석		
업종(대분류)	도·소매업(무역업)		
업종(중분류)	도·소매(수리 포함)		
업종(소분류)	전자·통신		
취급 분야	전자, 전기제품-가전제품, 컴퓨터 관련 제품, 통신기기		
진출 형태	법인-단독		
진출 형태(기타)	현지 판매 법인		
진출 연도	1999 년	종업원 현황(한국: 외국)	8 : 172 명
자본금	US\$ 5,000,000	투자 금액	US\$ 5,000,000
연간 매출액	US\$ 100,000		
국내 모기업	LG전자		
Address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0 LG트윈타워		
Tel	(02) 3777-1114		
Fax	(02) 787-3400		
Press	김쌍수		

4. 주요 투자법 내용

가. 스웨덴의 투자 정책

종래에는 스웨덴의 중요 산업을 보호하는 성향이 강했으나 점차 외국인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변동하고 있으며, 특히, 지역 간 균형 개발을 위하여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서도 국내 업체와 동일한 대우(지원) 제공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나. 투자 인센티브

1) 세제 인센티브

스웨덴의 법인세율은 28%로 숫자 상으로 볼 때 주요 유럽 국가에 비해 상당히 낮은 편이다.

국제적인 관점에서 볼 때 OECD 국가와 비교, 세계에서 가장 우대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특히 세금 감면까지 감안할 경우 실제 법인세율은 25%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은 낮은 법인세 이외에도 계열사 매도 시 발생하는 차익에 대한 세금 공제, 그룹 내부 배당금에 대한 세금 면제, 이자에 대한 전액 세금 면제, 외국인 투자 기업 주요 인사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 및 주요국과의 이중과세 납부방지에 대한 포괄적인 조세 협약 관계를 체결하고 있다.

□ 지역 인센티브(북부 지방 투자에 대한 지원)

- 지역 개발 보조금
 - 건물 설비 투자 시 지방 정부에서 2,000만 SEK까지 보조금 지급
- 개발 보조금
 - 연구, 마케팅, 교육 투자 시 소요 경비의 50% 또는 50만 SEK까지 지원
- 고용 보조금
 - 동 지역에서 신규 인원 채용 시 1 인당 5년간 20만 SEK까지 지원
- 수송 보조금
 - 동 지역에서의 수송 비용 50%까지 지원

다. 외국인 투자 유치 관련 법규

□ 외국인 투자와 관련하여 조언을 얻을 수 있는 기관

- ISA(Invest in Sweden Agency)
 - 전화: 46-8-402 7880
 - 홈페이지: www.isa.se
- NUTEK(Swedish National Board for Industrial & Technical Development)
 - 전화: 46-8-775 4000
 - 홈페이지: www.nutek.se

5. 진출형태별 절차

가. 현지 사무소 설립 절차

외국 회사의 현지 연락 사무소 설치 시에는 관련 기관에 별도 신고할 의무는 없다.

현지 연락 사무소라 함은 스웨덴 내 오너쉽이 없기 때문에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어떠한 상행위도 단독적으로 할 수 없으며, 단지 본사와 현지 간의 업무 연락 등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한편 고용인에 대한 고용주세와 사회보장세 납부 의무가 있으므로 관할 지방정부 세금청(Local Skattekontor)에 소정의 양식으로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회사 세금 신고 의무와 연차 보고서 제출 의무가 없으므로 연말 회계 감사는 필요 없다.

연락 사무소는 설치 시 관련 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사업을 개시할 수 있으며, 사업 개시 시에는 해외에 있는 본사의 이름을 사용한다.

나. 지사 설립 절차

1) 사무실 확보

지사 설립 단계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무실을 확보하는 일이다. 설립 등기나 공적인 신고, 거주권 및 노동권 허가, 은행 계좌 개설, 종업원 채용을 비롯한 대부분의 지사 개설 작업에는 사무실의 주소가 먼저 결정되어 있어야 한다.

2) 주거 확보

현지에 지사를 설립하기 위해 서둘러서 해야 할 일 중의 하나가 향후 자신이 생활할 주거를 확보하는 일이다. 생활의 거점이라는 의미 이외에도 지사의 대표자로서 주민등록번호를 받기 위해 필요하다.

3) 회사 등록 및 지사 개설

지사 설치 신고 비용은 2,000SEK(약 300달러)로서, 스웨덴 회사 등록청(Swedish Companies Registration Office)에 지사 설치 신고 양식과 본사로부터 가지고 온 취임장을 제출하면 심사 후 약 3~4주 후에 회사 등록 번호를 수령할 수 있다.

지사의 경우 연말에 세금신고 의무와 정산 장부 비치 의무가 있으며, 스웨덴 내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지사는 특별한 지사명(Trade Name)으로 활동하며 지사 대표가 있어야 하는데, 특히 지사의 대표는 반드시 EEA(The European Economic Area) 국가 내에 거주하여야 하며,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정부로부터 특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편 지사는 일정 회계 양식 체제를 갖추어야 하며 공인회계사의 감사가 있어야 하고, 지사의 대표는 지사 회계서 복사본과 공인회계사의 회계 연도에 대한 보고서를 세금청에 제출할 의무가 있다.

지사명은 외국 본사 명에 지사라는 단어가 추가되어야 하며, 회사의 국적이 확실히 명기되어야 한다. 지사명은 스웨덴 특허/등록청(The Swedish Patent and Registration Office)이나 회사 등록청(Swedish Companies Registration Office)에 기 등록된 다른 회사 명과 확실히 구분되어야 하며, 지사의 편지 양식 등에 본사의 회사 형태, 등록 사무실, 등록 번호를 지사 등록 번호와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다. 법인 설립 절차

법인 설치 시에는 정관과 주식 납입 대금 증명서를 첨부하여 스웨덴 회사 등록청(Swedish Companies Registration Office)에 신고한다.

법인은 주주 1명 이상으로 구성되며 최소 자본금은 민간 기업의 경우 500,000크로나(약 68,000달러), 국영 기업의 경우 100,000크로나(약 13,000달러)이다.

법인 설치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은행에 해당 최소 자본금을 예치한 후 예치금 영수증을 수령하여 스웨덴 회사 등록청에 법인 설치 신고 양식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심사 후 약 3~4주 후에 회사 등록 번호를 수령할 수 있다.

법인 설치 신고 비용은 지사 설립 신고 비용과 동일한 2,000SEK(약 300달러)이다.

법인의 경우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 세금을 확정/정산하여야 하며, 초과 납부액은 환급 받고 부족액은 추가로 납입해야 한다. 한편 매 회계 연도 말 이후 6개월 이내에 주주총회를 개최하여야 하는데 이때는 외부 감사 보고서가 승인되어야 한다.

라. 공장 설립 가이드

외국인 투자 기업이 스웨덴에 공장을 설립하려면 먼저 지사나 현지법인 설치에 따른 신고를 하고 사업자 등록 번호를 받은 후에야 가능하다.

외국인 투자 기업이 스웨덴에서 공장 부지를 확보하는 방법은 대개 4가지 방식이 있는데, 스웨덴 측 합자/합작선의 현물 출자, 유상 양수, 유상 배정, 임차 등을 들 수 있으며, 공장 건물 확보 방법도 스웨덴 측 합자/합작선의 현물 출자, 구입, 임차, 신규 건축 등 4가지 방법이 있다.

마. 공장 부지의 확보

공장 부지의 현물 출자인 경우는 스웨덴 측 합자/합작 선이 해당 부지 사용권을 소재지 관할 지방 정부의 토지 관리국에 계약서에 별도 약정된 기한 내에 출자 절차를 마치고 등기 변경을 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공장 부지의 유상 양수는 외국인 투자 기업이 공장 건물을 설립하거나 기타 사업 목적의 필요에 의해 특정한 부지의 사용권을 원래 토지 사용권 등기자로부터 유상으로 양도 받아 양도 이전 등기를 거쳐서 부지 사용권을 획득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부지의 유상 양수는 양수 가격은 비교적 높지만 부지의 제3자에 대한 재양도와 임대 가능성이 가능하며, 저당이 가능하여 외국인 투자 기업은 동 유상 양수 방식을 선호한다.

부지의 유상 배정은 외국인 투자 기업 측이 중앙 정부 및 지방 정부에 투자 목적에 따른 부지 배정을 요청하면 사업 목적에 따른 국유 토지를 외국인 투자 기업측에 유상으로 배정하는 것이다.

부지의 유상 배정은 소재지 관할 지방 정부 측에 의한 것으로 배정 가격이 유상 가격보다 낮으나 임대, 저당, 재양도 등이 금지되어 있다.

공장 부지의 임차는 토지 사용권 소유자로부터 해당되는 부지를 임대차 계약을 통하여 임차 사용하는 방식으로 소정의 임차료를 토지 사용권 소유자 즉 임대자에게 납부한다.

바. 공장 건물의 건축

공장 건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토지 구입과 설계도 작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토지를 먼저 구입한 후에 설계사를 선정하여 설계 작업에 들어가는데 설계도가 완성되면 관할 지방 정부에 설계도 및 세부 작업도와 함께 건축 허가권을 신청한다.

건축 허가권을 받기까지는 보통 1~2개월 정도가 소요되나 세부 계획도나 설계도가 부실한 경우에는 허가까지 보통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건축 허가를 내주기 전 지방 정부의 담당자는 건축 허가권을 요청한 사람과 설계사를 만나 세부 적인 내용을 검색한다.

건축업자를 미리 선정하여 의뢰하는 경우에는 설계도 작성부터 건축 허가권 신청 및 완공에 이르는 전 과정을 일괄 관리하여 준다. 스웨덴 내 대형 건설 업체로는 SKANSKA사와 NCC사가 있다.

건축 허가를 득하게 되면 실제 건축에 들어가는데 완공될 때까지 보통 약 10여 번의 중간 검사가 이루어지며, 건축 허가를 내준 관할 지방 정부에서 최종 검사를 한다.

6. 투자입지여건

스웨덴은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개발하는데 앞장서고 있으며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연구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스웨덴 GDP의 약 3%가 연구개발비로 사용되며, 교육과 산업 분야 모두 튼튼한 기술적 기반을 갖추고 있다.

스웨덴에는 1980년 초 이래 산학협동체인 사이언스 파크가 잘 발달되어 있다. 주로 대학 및 연구 단체와 테크닉 센터 등이 인접해 있어서 20세기 스웨덴 산업을 크게 성공시키는 토양 역할을 해왔다.

스웨덴 사이언스 파크의 총 본산인 Swedepark는 24개의 사이언스 파크로 구성된 우산형 조직이다. 350개 회사, 20,000여 명 종사원이 밀집해 있는 스톡홀름의 시스타 사이언스 시티(Kista Science City)를 비롯, 10개 회사에 종사원 100여 명의 소형 사이언스 파크도 있다.

□ 단지 명칭: 시스타 사이언스 시티

- 소 재 지: 스톡홀름
- 특성: 유럽 내의 가장 다이내믹한 IT 및 전기통신 분야 센터 중 하나로 스웨덴의 실리콘 벨리로 불리고 있다. 각종 하이테크 업체들이 모여 1970년대 Ericsson사와 IBM사가 들어서면서 발전되기 시작하여 1988년 현재의 사이언스 시티가 설립되었는데 350개 회사에 25,000명의 종사원이 밀집되어 있다.
- 스톡홀름 대학(The University of Sockholm), 왕립 공대(The Royal Institute of Technology)와 연계되어 있으며 30명의 교수진, 500명의 교사 및 연구원, 3,000여 명의 학생이 모여있다.

- 연락처
 - 담당자: Mr. Nils-Erik Selin
 - 주 소: Electrum 203, 164 40 Kista Sweden
 - 전 화: +46-8-790 4032, 팩 스: +46-8-751 6062

□ 단지 명칭: 매르대비 사이언스 파크

- 소 재 지: 린쇄핑
- 특성: 1984 년 설립된 공단으로 150 개 사 4,000 여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씨그널 및 영상공학, 전기, 소프트웨어, 센서공학 및 전기통신 분야가 밀집되어 있다.
 - The University of Linköping 과 The Linköping Institute of Technology 와 연계되어 있다.
- 연락처
 - 담당자: Mr. Sten Gunnar Johansson
 - 주 소: Mjardevi Science Park AB 581 81 Linköping Sweden
 - 전 화: +46-13-20 6415, 팩 스: +46-13-21 0176

□ 단지 명칭: 스톡홀름 테크닉 웨이드

- 소 재 지: 스톡홀름
- 특성: 1986 년 설립된 공단으로 40 개사 150 명의 종사원이 있으며 재료공학 및 IT 공학 부문에 집중되어 있으며 화학 및 생화학 분야도 있다. 왕립 공대 및 스톡홀름 대학과 연계되어 있다.
- 연락처
 - 담당자: Ms. Monica Ekdahl
 - 주 소: Bjornnasvagen 21. 113 47 Stockholm Sweden
 - 전 화: +46-8-790 0700, 팩 스: +46-8-15 8552

□ 단지 명칭: 노뎀 리서치 파크

- 소 재 지: 스톡홀름
- 특성: 세계 최초의 생의학 분야 연구센터 중 하나로 1985 년에 설립되었으며, The Huddinge University Hospital, Karolinska Institute, Sodertornrs University 와 연계되어 있다. 연구 분야로는 장기 이식, 감염 질병, 유전자 치료 등이 있다.
- 연락처
 - 담당자: Ms. Charlotte Munck af Rosenschold
 - 주 소: Novum Research Park 141 57 Huddinge Sweden
 - 전 화: +46-8-746 0080
 - 팩 스: +46-8-779 5813

□ 단지 명칭: 샬머스 사이언스 파크

- 소 재 지: 요테보리
- 특성: 1987 년 설립된 단지로 30 개사 300 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다. 연구 분야는 재료 과학, 마이크로 전자, 수송 차량 관련 연구 및 시스템 공학, 환경 분야 등이다.

- 연락처
 - 담당자: Mr. Lars Jacobson
 - 주 소: Chalmers Science Park 412 88 Goteborg Sweden
 - 전 화: +46-31-772 4039
 - 팩 스: +46-31-82 7035

7. 노무관리

2008년 말 기준 스웨덴의 경제 활동 인구는 3,842천명이다. 스웨덴의 실업률은 2006년 5.3%, 2007년 5.4%, 2008년 6.1%를 기록하였다.

가. 경제 활동 인구

16~65세 사이의 경제 활동 인구는 총 인구 대비 71.1%인 3,842명(2008년 기준)이다.

성 별	총 인구 대비 경제 활동 인구율(16세-65세)	고용자 수(천 명)	실업률(%)
Total	71.1%	3,842	6.1
남 성	73.9%	2,077	5.9
여 성	68.3%	1,765	6.5

자료: 스웨덴 통계청, 2009년8월 말 기준

나. 노조 가입 현황

전 고용자의 약 83%가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있는데, 중앙 연합에는 다음과 같은 노동조합이 있다.

조합 명	약칭	회원 가입 대상	홈페이지
The Trade Union Confederation	LO	노동직	www.lo.se
The confederation of Salaried Employees	TCO	사무직	www.tco.se
The Confederation of Professional Associations	SACO	대학졸업생	www.saco.se

자료: 스웨덴 통계청

다. 노동법

1) 노동법

고용안정법(Acts on Employment Security)을 비롯한 다수의 노동 관련법은 노동 시장, 노동 환경, 고용자들의 결정 과정에의 참여 등을 조절하고 있다.

한편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된 고용 안정법의 변경 내역은 다음과 같다.

그 동안 조업 단축 시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에 적용되어 왔던 해고 순서 관련법(고용법 1982: 80, 22§)은 근로자를 감원하는 순서에 있어서 반드시 나중에 채용한 근로자를 먼저 해고하게 되어 왔다. 그러나 2001년부터 새로이 도입된 법안 개정으로 인하여 최고 10여 명의 종업원을 둔 고용주는 조업 단축 시 근로자를 감원하는데 있어서 최고 2명까지 해고 순서 관련법에서 예외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즉, 고용주가 근로자를 특별히 회사에 필요한 재원이라고 인정할 경우 회사 형편상 감원이 불가피할 경우에도 감원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2) 고용주세

고용주세는 31.42%이며, 고용자가 지불하는 소득세는 지방자치 세금 형태로 지불하게 되므로 거주지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나며 보통 26%~35%의 소득세를 지불하게 된다.

3) 법정 근무 시간 및 유급 휴가 기간

법정 근무 시간은 주당 최대 40시간을 넘지 못하게 되어 있으며, 연간 최소 법정 유급 휴가는 5주일(근무 일수로 25일간)이다.

8. 조세제도

스웨덴은 OECD국가 중 세금 부담이 가장 높은 나라로서 GDP의 약 50%가 세금으로 이루어져 있다.

과거 경기 침체가 극심했을 때는 세금 비율이 75%에 육박한 때도 있었으나, 1990~1991년 중 스웨덴 정부가 광범위한 세제 개혁 조치를 단행, 개인 소득세 지출을 최고 50%까지 축소해 바 있다.

한편 기업에 대한 실효세율은 비교적 낮은 편으로 기계 및 장비에 대한 감가상각도 비교적 관대한 편이나 사회보장성 경비의 부담 규모가 전체 노동자 급여의 1/3정도가 되어 부담이 되고 있다.

스웨덴의 부가가치세는 식료품 12%, 서적/신문류 6%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25%이다.

과실송금보장제도에는 제한이 없으며, 주식 배당금 송금 시 원천세를 징수한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15%이다.

세제를 보면, 군수 산업을 제외하고는 모두 동등하게 대우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스웨덴 기업과 외국 기업의 차별이 없다.

법인세는 이익 규모에 관계 없이 28%로 일정하며, 개인 소득세는 각 자치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르나 28%선부터 시작되며 누진 세율이 적용된다.

9. 외환관리 및 자금조달

가. 외환 관리

원칙적으로 외화 자금의 반출입이 자유로우며 특별한 규제는 없다. 다만 은행을 통하여 100,000크로나(종전에는 75,000크로나 이상 신고 의무가 있었으나 2000년 7월 1일 변경됨) 이상의 자금을 외국으로 송금하거나 또는 외국으로부터 입금될 경우 거래 은행에 신고할 의무가 있으며, 거래 은행은 신고된 사항을 중앙은행에 알릴 의무가 있다.

스웨덴 내 직접 투자는 중앙은행 허가 사항이었으나 1989. 7. 1일부터 완전 자유화되었으며,

외자 도입 시에도 금액, 기간, 목적에 대한 제한이 완전 해제되었다.

나. 현지 금융 조달 여건

1980년대 말까지 부동산 담보 또는 신용 대출이 비교적 용이하였으나 1990년부터 경기 침체 및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금융 기관이 큰 손실을 입어 현재는 금융 조달이 쉽지 않은 상태이다. 그러나 거래 은행과 안정적인 거래 관계가 있고 자금 용도 및 상환 계획이 확실하면 융자는 가능하다.

다. 과실 송금 보장 제도

과실 송금 보장 제도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주식 배당금 송금 시에는 원천세를 징수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15% 이다.

V. Business 참고정보

1. 시장 특성

가. 시장 규모

스웨덴은 인구 927만 시장으로 북유럽(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스웨덴) 중에서 가장 많은 인구와 시장 규모를 가진 나라이다.

잘 발달된 산업으로 인하여 비교적 높고 안정적인 소득을 유지하고 있으며, 높은 세율로 인해 국민 간 소득 격차가 그렇게 높지 않은 나라이다. 대부분의 산업은 부가가치가 높은 기계, 화학 등에 집중되어 있으며, 경공업 제품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나. 시장 특성

높은 해외 의존도로 인해 외국과의 교역에 대해 매우 긍정적이며, 외국 제품에 대해서도 품질과 가격만 괜찮다면 거부감을 가지고 있지 않다. 안정된 수입과 잘 발달된 사회보장 제도로 인해 높은 품질의 내구성이 좋은 제품을 선호하며, 자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매우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수출 시장으로서 스웨덴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부가가치가 높은 내구성 제품 시장과 일상 소비재 제품 시장으로 구분해야 한다.

대부분의 스웨덴 국민들이 내구성 제품에 대해서는 유명 브랜드나 자국산 제품에 대해 강한 애착을 가지고 있으며, 높은 품질 수준과 철저한 A/S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일반 소비성 제품에 대해서는 가격에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품질과 가격을 철저히 비교한다.

상행위 면에서 보면, 철저히 신용을 바탕으로 하는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소비자가 구매 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자유롭게 반환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 있는 등 소비자에 보호가 매우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품질에 있어서는 매우 높은 수준을 요구하고 있으며, 납기도 매우 엄격하게 지켜지고 있다. 하지만, 일부 소비재 제품에 대해서는 가격에 매우 민감한 이중성을 보여 주기도 한다. 현재, 이러한 제품들은 대부분 중국이나 동남 아시아 등지에서 수입하고 있다.

유통 면에서는 그렇게 크지 않은 시장 규모로 인해 복잡하지 않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 전국적인 유통망을 가지고 있는 몇몇의 거대 기업에 의해 물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몇몇 소매점들은 직접 수입을 추진하는 경우도 있다. 대부분 소비자들은 기존의 유통망에 대해 비교적 높은 신뢰감을 보여 주고 있으므로 처음 진출을 시도하는 한국 제품들은 기존의 유통망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소비자 특성

스웨덴인의 소비 특성을 들라면 무엇보다도 실용성을 들 수 있다. 유명한 브랜드 제품이라고 무조건 좋아하지 않고 품질만 좋으면 브랜드를 그다지 따지지 않는다. 품질이 좋고 값이 싼 한국산 승용차용 타이어, 양말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은 이미 오래 전부터고 최근에는 PC용 LCD모니터, 핸드폰, 광 케이블 등 첨단 IT 제품이 시장 점유율을 높여 가고 있다.

비즈니스 세계의 특성으로는 보수성과 정확성을 들 수 있다. 지난 1995년도에 EU에 동참했지만 아직 유로화를 쓰지 않은 신중함을 보인다. 시장 규모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한번 제품이미지가 나쁘게 된 업체는 또 다시 스웨덴 시장에 발을 들여 놓기가 쉽지 않다. 같은 업종 사람들끼리 업체 정보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스웨덴인들은 매우 보수적으로 처음 사귀기는 힘이 들지만 한번 사귀면 평생을 간다는 말이 있다. 비즈니스 세계에 있어서도 한번 거래 관계가 성립되면 거래선을 잘 바꾸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된 사회주의 체제에 익숙한 관계로 일반적으로 위험을 감수하는 '리스크 테이킹'(Risk Taking)을 꺼리는 경향이 높다. 따라서 스웨덴 시장을 뚫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접근하는 동시에 가격은 충분히 받는 대신에 장기적인 신뢰 관계를 구축하는 전략을 구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한탕주의(Spot Business)가 절대로 통하지 않는 시장임을 명심해야 한다.

라. 한국상품 인지도

스웨덴 소비자의 대부분은(80% 이상) 한국이 1960~1980년대를 거쳐 급속도로 공업화 되었으며, 수출 지향적 경제개발 정책을 시행하여 왔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에 근거하여 한국산 제품의 품질이 아주 조악한 수준은 아닐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한국산 제품의 품질에 대한 인식은 아주 막연한 것으로서 막상 특정 제품의 상표를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다.

이러한 현상은 대부분의 소비자가 한국이라는 국가의 존재를 알고 있는 점과 각종 소비재 공급국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대 스웨덴 접근 정책에 시사점을 준다. 즉 스웨덴이라는 시장에서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우리 상품의 존재와 명칭 그리고 제조 업체의 기술력 등에 관한 정보가 미미하게 전파된 것은 정치적인 집단으로서의 국가 존재 또는 거시경제 측면의 홍보에 치중한 결과로 보인다.

한편 수입상, 도매상 등 업계 관계자들은 소비자들과 다른 인식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들은 대부분 한국 상품의 기술 수준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을 하고 있다. 이들의 한국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는 소비자들보다는 높았으나 삼성, LG, 대우, 현대 등 대기업 위주의 몇몇 브랜드를 거론하는 정도이며 우리 상표들에 대한 자리매김(순위)도 일본산, 유럽 산에 비하여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마. 유통 구조

1) 수출입 절차

□ 수입 절차

- 일반적으로 무기류, 마약류 등 유해한 물품은 수입이 금지되며 야생 동물이나 독성 화학 물질 등 자연보호 또는 환경 보전에 유해한 물품도 수입이 금지되어 있다.
- 식품류와 위생기구는 사전에 수입 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련기관은 아래와 같다.
 - 식품: National Administration(Statens Livsmedelverk)
 - 의약품: Medical Product Agency(Lakemedelsverket)
- 전자, 전기용품은 수입 전 규격 인증을 획득해야 한다.
 - 종전에는 SEMKO 의 규격을 필히 득해야 했으나 1993 년 7 월부터는 EU 통일 규격에 부합하는 유럽 어느 국가의 규격이라도 SEMKO 로 전환이 용이하며, 법적 강제 조건은 아니나 실제 소비자들은 SEMKO 마크인 S 마크를 찾고 있다.
- 공중통신기기에 접속되는 전화기, 모뎀, 팩시밀리 등은 사전에 스웨덴 통신국(Telestyrelsen) 의 T 마크를 획득해야 판매와 사용이 가능하며, 수입 물품의 통관 절차는 번거롭지 않고 원칙에 의해 수행된다.

2) 도. 소매상간의 유통 단계

- 시장 규모가 협소한 관계로 수입상 또는 제조업체가 직접 소매상에 공급하는 경우도 많다.
 - 수출입 업체 자격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매상도 직접 수입하려고 시도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물량이 소량인 경우가 많다.
 - 소매 업종별 평균 유통 마진은 아래와 같다.
 - 20% 이하: 식료품류
 - 25~30%: 철물, 라디오, TV, VCR
 - 30~35%: 조명기구, 페인트, 가구, 도서, 레저용품
 - 35~40%: 의류, 섬유, 신발, 사진용품, 유리, 도기 등
 - 40% 이상: 시계, 보석, 안경 관련 용품 등
- (자료: Sweden Institute 발행 Fact Sheet Fs 65n)

바. 효율적인 마케팅

- 스웨덴 소비자의 성향은 상당히 보수적으로 기존 유명 상품에 대한 집착이 심하므로

신규 브랜드 진출 시 브랜드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상당한 투자가 필요하다.

- 특히 자국산 제품에 대한 신뢰도 내지는 자부심이 매우 강한 편이다.
- 기존의 소비자에게 신뢰를 얻고 있는 판매망을 이용하는 것이 절대 유리하며, 특히 전기, 전자제품은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SEMKO 의 안전규격승인(S 마크), TCO(사무용 모니터의 유해 전자파 미 방출 규격) 및 EU 마크 등을 사전에 획득해야 한다.
- 특이한 기능의 부가보다는 기본적인 기능을 100% 충족시킨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것이 현지 소비자 기호에 맞는다.

2. 물가정보

(1 US\$ = 7.14 SEK / 2009년 12월 31일 기준)

구분	항목	가격(SEK)
식품류	쌀 1kg	23
	계란 12개	26
	쇠고기 등심 1kg	269
	돼지고기 등심 1kg	105
	우유 500ml	4
	식용유 1L	50
	생수 1L	10
	맥주 (하이네켄 355ml, 6팩)	76
	담배 1갑 (말보로 라이트)	51
	햄버거 (맥도날드 빅맥)	58
	김치찌개 1인분	150
의료비	의료보험료 (4인가족, 치과제외 Full Cover, 1년)	25,467
	병원진료비 (의료보험 X, 몸살감기 내과초진)	640
	병원진료비 (의료보험 O, 몸살감기 내과초진)	140
차량관련	중형승용차 (2000cc 신차, 오토, 에어컨포함 기본사양)	250,000
	무연휘발유 1L	11.3
	자동차 등록비	No
	자동차보험료 의무(2000cc신차,운전경력10년,대인/대물커버, 1년)	4,000
교통비	도심 1시간 주차료	70
	지하철 기본요금 (1구간)	30
	시내버스 기본요금	30
	택시 기본요금	230
통신	시내전화 요금 (3분)	0.6
	국제전화 요금 (3분, 한국으로 걸 때)	2.07
	휴대전화 요금 (월표준 1분)	0.69
	인터넷 월사용료 (ADSL 기준)	359
주택	아파트 월 임차료 (150sm, semi-furnished, 시내, 중상급)	35,000
교육	외국인학교 초등 1년 수업료 (중상급)-6학년	132,000
	외국인학교 중등 1년 수업료 (중상급)-9학년	143,000
	외국인학교 고등 1년 수업료 (중상급)-12학년	165,000

숙박	특급호텔(5성급) 1박 정상요금 (싱글)	4,200
	중급호텔(3성급) 1박 정상요금 (싱글)	1,900
임금/노무	대졸 초임 (중상급 대졸, 영어구사, 외국인회사 초임 월급여)	28,000
	생산직 초임 (학력무관 월급여 초임)	19,000
	매니저급 급여 (인사담당 5년 경력 과장급 월급여)	40,000
	주당 법정근무시간	35
	출산휴가일수	240
	연간 국경일수	13
	주5일 근무 여부	Yes
기타	드라이크리닝 (정장 1벌 기준)	150

3. 바이어 발굴

가. 오프라인을 통한 바이어 발굴

☐ 스웨덴 산업별협회

- Bokhandlareföreningen, Svenska(스웨덴 도서공급업자협회)
 - 주소 Skeppargatan 27, 114 52 Stockholm
 - 전화 08-663 02 05, 팩스 08-660 06 66
 - 홈페이지: www.booksellers.se
- Bygg- och Järnhandlareförbund, Sveriges(스웨덴 건설기자재 및 철물 공급업자협회)
 - 주소 Box 17559, 118 91 Stockholm, Rosenlundsgatan 54, 1 tr "Branschernas Hus"
 - 전화 08-5059 70 70, 팩스 08-5059 70 75
 - 홈페이지: www.byggjarnhandlarna.se
- Dagligvaruhandel, Svensk(스웨덴 생필품공급업자협회)
 - 주소 Blasieholmsgatan 4B, 103 29 Stockholm
 - 전화 08-762 78 05, 팩스 08-762 77 60
 - 홈페이지: www.svenskdagligvaruhandel.se
- ElektronikFörbundet, Svenska(스웨덴 전자제품공급업자협회)
 - 주소 Box 17559, 118 91 Stockholm, Branschernas Hus, Rosenlundsgatan 54(1tr)
 - 전화 08-505 970 60, 팩스 08-505 970 69
 - 홈페이지: www.elektronikforbundet.se
- Livsmedelsgrossisterna för restaurang och storkök(스웨덴 요식업체 생필품공급업자협회)
 - 주소 Blasieholmsgatan 4B, 103 29 Stockholm
 - 전화 08-762 76 44, 팩스 08-762 76 45
- Rörgrossistföreningen VVS, Svenska(스웨덴 배관공급업자협회)
 - 주소 103 29 Stockholm
 - 전화 08-762 76 48, 팩스 08-762 76 49
 - 홈페이지: www.rsk.se

- Svensk Handel – STIL(스웨덴 수입업자협회)
 - 주소 Besöksadress: Blasieholmsgatan 4B, 103 29 Stockholm
 - 전화 08-762 77 00
 - 홈페이지: www.stil.cc
- Tobaksleverantörsföreningen(스웨덴 담배공급업자협회)
 - 주소 Blasieholmsgatan 4B, 103 29 Stockholm
 - 전화 08-762 78 14, 팩스 08-762 78 49

나. 온라인을 통한 바이어 발굴

- 홈페이지: <http://www.industriforbundet.se/>
 - 기관명: 스웨덴 산업연합회(Federation of Swedish Industries)
 - 참고 사항: 스웨덴 전역의 업종별 바이어 검색이 가능한 사이트로 관련 업체에게 유용한 사이트임.
- 홈페이지: <http://www.svenskhandel.se/>
 - 기관명: 스웨덴 도/소매업자 연합회(Sweden's Wholesaler & Retailers Association)
 - 참고 사항: 스웨덴 전역의 업종별 도/소매업자 연락처 검색이 가능한 사이트임.
- 홈페이지: <http://www.handelsagenterna.se/>
 - 기관명: 스웨덴 무역 에이전트 연합회(The Federation of Commercial Agents of Sweden)
 - 참고 사항: 일반 정보, 멤버 정보, 에이전트 업체 연락처 등 검색이 가능한 사이트임.
- 홈페이지: <http://www.kompass.se/>
 - 기관명: 스웨덴 콤파스(Kompas Sweden AB)
 - 참고 사항: 스웨덴 전역의 업체별, 품목별 정보 및 연락처 검색이 가능한 유료 사이트로 관련 정보 수집을 위해서는 패스워드가 필요하며 비용을 지불해야 함.
- 홈페이지: <http://www.swedishtrade.se/>
 - 기관명: 스웨덴 무역협회(Swedish Trade Council)
 - 참고 사항: 스웨덴 무역 관련 업체 명, 주소, 전화, 팩스, 담당자 등의 유용한 정보 수집이 가능한 사이트임.
- 홈페이지: <http://www.chamber.se/>
 - 기관명: 스톡홀름 상공회의소(Stockholm Chamber of Commerce)
 - 참고사항: 수입업자, 수출업자, 제조업자, 도매상 등의 연락처 검색이 가능한 사이트임.

4. 상관습 및 거래시 유의사항

가. 상거래 시 유의 사항

스웨덴 시장은 자유경쟁원칙에 충실한 시장으로 판매자 및 구매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좇아 자유 의사에 따라 활동하고 있다. 한편 국제적인 기준에서 볼 때 스웨덴은 비교적 윤택한 나라이기에 일반적인 선입견을 가질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의해야 한다.

첫째, 바이어들이 높은 품질과 우수한 디자인 감각을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포장 및 딜리버리 등 제반 분야에 대한 요구 수준이 높아 처음 진출하는 업체들에게는 다소 까다로운 상대로 비쳐지기도 한다.

둘째, 스웨덴이 비교적 윤택한 나라이므로 우수한 제품이면 무조건 다 잘 팔린다는 선입견은 잘못된 것이다. 스웨덴 바이어들은 가격에 민감한 편이며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어느 정도의 가격이면 구입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문제에 길들여져 있다. 특히, 품질 수준이 낮은 경우, 설사 가격이 낮다 할지라도 선뜻 팔리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는 그들이 어느 정도 최소한의 품질 수준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나. 비즈니스 에티켓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비즈니스 에티켓이면 충분하다. 신용과 진실을 우대하며, 약속한 것은 꼭 지키도록 노력한다. 하지만, 인간 관계에 있어서 동양식 가치관에 따른 노소간, 남녀간의 차이는 없다. 노인이라고 해서 젊은 층이 특별히 우대하거나 어려워하는 일은 거의 없다. 남존여비사상은 없으며 오히려 여성들이 더 왕성한 활동력을 보이는 경우도 많다.

다. 상담 시 유의 사항

스웨덴 사람은 일반적으로 차분하며 논리적이다. 따라서 현지인과 상담 시에는 이를 유의해야 한다. 대화가 논리적이며, 설득력이 있어야 하고 너무 소란스럽지 않고 조용하게 대화를 나누는 것이 좋다. 서두에 다른 이야기를 할 분위기일 때는 날씨, 스웨덴의 전통 행사, 취미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 것이 좋다. 특히 스웨덴인은 대개 2-3개 정도의 취미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주제는 처음에 이야기를 풀어 나가는 데 상당히 유용하다.

라. 문화적 금기 사항

스웨덴에서는 일반적인 서구 국가와 마찬가지로 특별한 금기 사항은 없지만 다음과 같은 사항은 주의해야 할 것이다.

먼저, 여자 상담자에게 남녀 차별적인 언동이나 스웨덴이 섹스의 나라라는 식의 표현은 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스웨덴이 사회 복지 정책을 시행하면서 전반적인 제도나 분위기가 사회주의 색채를 띠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산주의와 가깝다는 표현에 대해서는 상당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

5. 무역, 투자진출시 애로사항

스웨덴은 높은 해외 시장 의존도로 인해 대외 수입에 대해 매우 관대한 입장으로 대부분의 경공업 제품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수입 규제정책은 없다. 이로 인해, 한국 기업과 관련된 특별한 규제 조치는 아직 발효된 적이 없다. 하지만 스웨덴이 EU 회원국인 만큼 EU 공통으로 관련되는 수입 규제 정책은 유효하다. 따라서 EU 공통 관련 수입 규제 정책에 대해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다만 스웨덴과 관련된 무역 및 투자장벽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이 현지 진출 한국 업체로부터 제기되고 있다.

먼저 사회보장 보험료 부담을 들 수 있다. 스웨덴에서는 고용주가 고용인을 위하여 의무적으로 각 고용인 보수의 31.42%에 해당하는 사회보장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스웨덴 진출 우리 기업은 스웨덴인 고용인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본사 파견 한국인 직원에 대해서도 보수의 31.42%에 해당하는 사회보장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보험료를 납부한 외국인은 국민 기본 연금 수급권이 있으나, 실제로 기본 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스웨덴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연금 수급권 획득 후 외국으로 영구 이주하는 자에게는 기본 연금이 지급되지 아니한다. 한편 3년 이상 사회보장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추가 연금 수급권을 획득하게 되는데, 외국으로 영구 이주하는 경우에도 동 추가 연금은 지급받을 수 있다. 따라서, 우리 상사 지사의 본사 파견 직원은 보통 4-5년 후 주재국을 떠나게 되므로 추후 추가 연금은 받을 수 있으나, 기본 연금은 받을 수 없다.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 운전면허 인정 문제이다. 스웨덴 운전면허 법은 유효한 외국의 운전면허증에 대해 스웨덴 내에서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으나, 인정 범위에 대해서는 유럽 경제지역(European Economic Area: EEA) 국가와 여타 국가에 대하여 차별을 두고 있다.

EEA 국가 운전면허증에 대해서는 동 소지자가 스웨덴의 주민등록을 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스웨덴 내에서의 효력을 인정하며, 여타 국가의 운전면허증에 대해서는 소지자의 스웨덴 주민 등록일로부터 1년간 효력을 인정해 준다. 또한, EEA 국가 이외의 운전면허증에 대해서는(일본과 스위스 제외) 스웨덴 면허증으로 교환 발급해 주지 않는다.

그러나 예외 규정을 두어 상사 주재원과 같이 일정 기간 스웨덴에 체류하는 외국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스웨덴 주민등록일로부터 1년까지만 유효하다는 외국 운전면허증의 스웨덴 내 효력 규정에 대한 면제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 행정 관청은 동 면제 신청이 충분한 사유가 있고, 교통 안전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스웨덴 체류 기간 동안 외국 운전면허의 효력을 인정하는 증서를 발급해 준다.

6. 진출 성공, 실패 사례

□ 삼성전자의 시장 진출 성공 사례

1) 개관

1992년 50만 달러의 자본금으로 스웨덴 시장에 진출한 삼성전자 북구법인은 현재 자본금 규모 1,500만 달러, 본사 파견 인원 10명을 포함한 178명의 인력을 가진 현지 법인이 되었다. 높은 기술 수준을 가진 스웨덴 시장에 진출하여, 높은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으며, 현재 평면 TV, 핸드폰 등 몇 개의 품목에서는 시장 점유율 선두를 달리는 등 활발한 활약을 보여주고 있다.

2) 주요 성과

1992년 설립 이후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삼성전자는 2008년 기준 582백만 유로를 상회하는 매출 규모를 보였다. 이는 설립 연도 당시의 900만 달러와 비교하면 눈부신 발전이라 할 수 있다.

현재 TFT 모니터, 전자레인지, 컴퓨터, 평면 TV, 핸드폰 등 다수의 품목을 취급하고 있으며 특히, 핸드폰은 에릭슨의 홈그라운드에 진입하여 활발히 판매되고 있다.

“To be most excellent business partner in electronics industry”라는 모토를 내걸고 스웨덴 시장의 공략을 위해 매진하고 있다.

3) 성공 요인 분석

이러한 성공을 거두기 위해, 삼성전자는 철저한 시장 분석과 현지화를 단행하였다. 까다로운 소비자와 높은 기술 수준을 가진 스웨덴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세부 시장을 철저히 분석하였으며, 현지 고용 인력과 화합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스웨덴 사회에서 발달한 사회 간접 시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아웃소싱 정책을 적극 활용하여 작지만 강한 현지 법인을 만들어 나갔다. 물론, 본사와의 원활한 의사 소통과 협조를 받은 것은 물론이다.

□ 시사점

삼성전자가 다른 국내의 동종업체에 비해 월등히 높은 매출과 좋은 경영 성과를 보이는 것은 자신의 강점을 스웨덴 시장 내부에 잘 조화시킨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철저한 현지 시장 분석을 통해, 자신의 강점에 맞는 세부 시장을 찾아내고, 그 시장에 필요한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스웨덴 시장이 비록 선진 기술 사회지만 국내 업체의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 세부 시장을 찾아내고, 이를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지혜가 있을 때, 성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하겠다.

7. 이주정착 가이드

가. 주민등록번호 및 ID카드 신청

스웨덴으로 이주하였을 경우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거주하는 코뮌(Kommun, 우리나라의 구에 해당)의 세금청에 찾아가 주민등록을 하고 주민등록번호(Personnummer)를 발급 받는 일이다.

주민등록번호는 보통 신청 후 약 3주일 뒤에 나오게 되는데,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주민등록 초본(Personbevis)과 사진을 지참, 은행이나 우체국에 ID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이때는 스웨덴 ID 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신분 보증인이 반드시 동행하여야 한다.

나. 의료보험카드 신청

의료보험카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스웨덴 주민등록증이라고 할 수 있는 ID 카드가 있어야 한다. ID 카드를 가지고 가까운 병원에서 의료보험카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즉석에서 의료보험카드를 무료로 만들어 준다. 의료보험카드가 없는 외국인은 의료보험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다.

다. 주택 구하기

스웨덴에서는 주택 구하기가 쉽지 않다. 주택을 구하기 위해서는 주거 희망 지역의 부동산업자 에게 의뢰하거나 일간 신문이나 지역 신문(Lokal Tidningen)의 주택 광고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구할 수 있다.

한편 연립 주택이나 아파트의 경우, 주차장이 임차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차장은 별도로 임대하여야 한다.

라. 구좌 개설

은행에 구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스웨덴 주민등록번호(Personnummer)가 명기된 ID 카드(신분증)가 필요하다.

마. 자녀 교육 여건

스톡홀름에는 외국인 자녀를 위한 외국인 학교가 다수 있다.

사립 외국인 학교일 경우에는 상당한 금액의 수업료를 지불하여야 하나, 구(區)(코뮌: Kommun)가 운영하는 외국인 학교일 경우에는 별도의 수업료가 없다. 그러나 각 학급마다 학수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가 요구하는 서류를 갖추어 입학 또는 전학을 미리 신청하여야 한다.

☐ 영국 학교

- 학 교 명: British Primary School
- 주 소: Ostra Vallhallavagen 17, SE-182 62 Djursholm, Sweden
- 전 화: +46-8-755 23 75
- 학 제: 초등학교 1 학년 - 7 학년
- 홈페이지: www.britishprimaryschool.se

☐ 독일 학교

- 학 교 명: Deutsche Schule Stockholm
- 주 소: Karlavagen 25, SE-114 31 Stockholm
- 전 화: +46-8-679 9844
- 학 제: 초등학교 - 고등학교
- 홈페이지: www.users.wineasy.se/dss/

☐ 스톡홀름 영어 학교

- 학 교 명: The English School in Stockholm
- 주 소: Vallhallavagen 9, SE-114 22 Stockholm, Sweden
- 전 화: +46-8-441 85 80
- 학 제: 초등학교 - 고등학교
- 홈페이지: www.engelskanorr.com, www.engelska.se

□ 스톡홀름 인터내셔널 학교

- 학 교 명: International School of Stockholm
- 주 소: Johannesgatan 18, SE-111 38 Stockholm, Sweden
- 전 화: +46-8-412 40 00
- 학 제: 유치원 과정,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 홈페이지: www.intsch.se

□ 쿡스홀멘 고등학교

- 학 교 명: kungsholmens Gymnasium
- 주 소: Hantverkargatan 67-69, SE-112 92 Stockholm, Sweden
- 전 화: +46-8-693 53 03
- 학 제: 고등학교
- 홈페이지: www.kun.edu.stockholm.se/int.index.html

□ 쿡셴엔 인터내셔널 학교

- 학 교 명: Kungsangens International School
- 주 소: Enbarsvagen 5, SE-196 35 Kungsängen, Sweden
- 전 화: +46-8-584 509 00
- 학 제: 고등학교

□ 낙까 인터내셔널 학교

- 학 교 명: International School in Nacka
- 주 소: Brantvagen 1, SE-133 04 Stockholm, Sweden
- 전 화: +46-8-718 8300
- 학 제: 초등학교 - 중학교
- 홈페이지: <http://skolor.nacka.se/isn/>

□ 뢰다베리 학교

- 학 교 명: Rodabergsskolan
- 주 소: Upplandsgatan 100, SE-113 44 Stockholm, Sweden
- 전 화: +46-8-729 7930
- 학 제: 초등학교 - 중학교
- 홈페이지: <http://home3.swipnet.se/>

8. 출장가이드

가. 기후

1) 기후 특성

스웨덴은 비교적 추운 나라이나 멕시코만류의 영향으로 동일 위도상의 알래스카, 시베리아, 캐나다 북부에 비하여 기후가 훨씬 따뜻한 편이다. 여름은 따뜻하고 햇살이 강하여 영상 30도까지 올라가기도 한다. 스웨덴 북부와 남부 지방의 기온 차이는 여름보다는 겨울이 큰 편이어서, 스웨덴 북부 지방의 경우 12월과 3월 사이는 항상 눈으로 덮여 있는 반면에 스톡홀름과 옅살라 지방을 포함한 스웨덴 중, 남부 지방은 매년 강설량이 변동하고 있다.

스웨덴은 특히 봄과 8월에 비가 많이 내리는 강우기를 맞는다.

스웨덴에 체재하는 외국인에게 가장 힘든 점 중의 하나는 한겨울 동안 내내 지속되는 어둠이다. 이는 스웨덴의 지리적 위치와 관계 있으며, 북부 지역에서는 12월과 1월 사이에 단 몇 시간만 해를 볼 수 있다. 반면에 여름에는 일조량이 많고 밝아 스웨덴 북부에서는 6월과 7월 사이에 백야 현상을 체험할 수 있기도 하다.

2) 주요 도시의 기후

수도인 스톡홀름은 스웨덴 중부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다소 온화한 기후를 보이고 있으며, 연평균 기온 6.6℃ 정도를 기록하고 있다. 1월 중 평균 기온은 -2.9℃ 정도이며, 7월 중 평균 기온은 17.8℃ 정도이다. 스웨덴 제2의 도시이자, 공업 지대인 요테보리 지역은 연평균 기온 7.6℃, 1월 중 평균 기온 -1.1℃, 7월 중 평균 기온 17℃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도시와 산업 시설들이 스웨덴 중남부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이와 비슷한 기온 분포를 보이고 있다.

3) 출장 시 추천 복장

스웨덴은 비교적 복장에 신경을 쓰지 않는 문화이나, 중요한 모임에는 반드시 정장을 갖추어야 한다. 낮은 습도로 인해 체감 온도가 실제 온도와 비슷하기 때문에, 심하게 추위를 느끼거나 더위를 느끼지는 않는다. 겨울에는 비교적 실내 난방이 잘 되어 있는 덕분에 너무 두꺼운 옷만 준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한편 한여름에도 바람이 많이 불고 일교차가 크므로 항상 이에 대비할 수 있는 옷차림을 준비하여야 한다.

나. 시차/근무 시간

1) 시차

스웨덴의 표준 시차는 동계 시 GMT +1시간(10월 마지막 주 일요일에서 3월 마지막 주 토요일), 하계 시 GMT +2시간(3월 마지막 주 일요일에서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으로 동계 시에는 스웨덴이 한국보다 8시간 늦으며 하계 시에는 7시간 늦다.

2) 근무 시간

스웨덴 노동법(1982:673)에 따른 근무 시간은 주당 최대한 40시간으로서 일반적으로 평일

하루(월~금) 8시간 근무를 채택하고 있으나, 각 기업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다. 대부분의 스웨덴 기업들이 점심 시간을 포함한 1일 8시간 근무를 채택하고 있으며, 주당 35~40시간 사이에서 기업마다 각기 다른 근무 시간을 채택하고 있다.

□ 스웨덴의 관공서, 은행, 우체국, 상점 등의 영업/근무 시간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기관 및 업종 명	전 화	영업/근무 시간	참고 사항
정부종합청사	+46-8-405 1000	flexible time 적용 08:00/09:00~16:30	-
관세청	+46-771-232323 +46-771-520520	08:00~16:40(월~금) 08:00~16:00(5~8월)	-
중앙은행	+46-8-787 0100 +46-8-787 0000	09:00~16:00(월~금) 08:00~17:30(월~금)	Lunch 11:20~12:00
통계청	+46-8-506 94801 +46-8-506 94000	10:00~15:00(월~금) 08:00~16:30(월~금)	Lunch 12:00~13:00
세금청 (스톡홀름 지역)	+46-8-694 1000	08:00~16:00(월~금)	관할 지역마다 약간의 차이 있음.
구청 (스톡홀름 지역)	+46-8-5792 1000	09:00~18:30(월~금)	각 구 및 부서마다 약간의 차이 있음.
은행	-	10:00~15:00(월~금)	소재지에 따라 주중 1일은 영업 시간 연장(~18:00)
우체국	-	10:00~18:00(월~금)	소재지에 따라 약간의 차이 있음.
우체국(중앙역 내)	-	07:00~22:00(월~금) 10:00~19:00(토~일)	-
백화점 (NK, Ahlens, PUB 등)	-	10:00~19:00(월~금) 10:00~17:00(토) 12:00~17:00(일)	소재지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며, 지하 식료품 부서는 1시간씩 연장 근무.
프레스비론 (지하철역 내 상점)	+46-8-587 490 00	06:00~22:00(월~금) 07:00~22:00(토, 일)	소재지에 따라 약간의 차이 있음.
시내 상점들	-	백화점 영업시간과 비슷	-

다. 도량형

스웨덴은 미터법(metric system)을 사용하고 있다. 소수점 이하 수치는 콤마로 표시하고 천 단위는 포인트로 구분하고 있다.

1) 거리

자동차 주행 거리를 언급할 때 10km를 스웨덴 1 마일(mil)로 표시한다. 예를 들어 100,000 km를 주행한 자동차는 10,000스웨덴 마일(mil)로 표기한다.

2) 전기 규격

전기 규격은 50HZ, 230V이다.

3) 무게

무게 측정 시 그램(g)과 킬로그램(Kg), 헥토그램(/Hg)을 사용하는데 헥토그램은 킬로그램과 그램의 중간 단위로 1 hg = 100 g, 1 kg = 10 hg로 표시할 수 있다.

라. 출입국/비자

1) 비자 발급처

- 기관: 주한 스웨덴 대사관
- 주소: 서울시 종로구 서린동 136, 센트럴 빌딩 12층 서울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1154
- 전화: 82-2-738 0846
- 팩스: 82-2-733 1317
- e-메일: swedemb@swedemb.or.kr
- 홈페이지: www.swedemb.or.kr

2) 비자 필요 여부 및 특기 사항

한국인은 스웨덴과의 비자 면제 협정으로 90일 이내의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며 무비자로 스웨덴에 입국하여 3개월이 지난 후 더 머무르려면 이민국(Swedish Immigration Board/Statens Invandrarverket)으로부터 체류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회 3개월 체류 연장을 허용해 주고 있다.

3) 구비 서류

3개월 이내의 상용, 관광의 경우에는 비자를 받을 필요가 없으나 3개월 이상의 장기 체류의 경우에는 파견 기관의 재정보증서(LETTER) 또는 현지 취업 기관의 취업 증명서를 첨부하여 주한 스웨덴 대사관에 비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사관에서는 이를 본국 외무성에 통지하여 관련 기관을 통하여 사실 확인 후 비자를 발급해 준다.

4) 방역 관계

살아있는 동식물은 검역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반입이 가능하며, 판매 목적일 경우에는 국가 농업 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있어야 한다.

열종 위기에 있는 동식물이나 그 부산물은 반입이 금지되어 있으며, 여행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질병이 유행하고 있는 지역으로부터 오는 경우가 아니면 특별한 규제는 없다.

5) 출입국 절차

관광 또는 비즈니스 모두 3개월 이내의 단기 체류일 경우는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데 입국 절차는 입국대에 가서 여권에 입국 스탬프를 찍은 다음 녹색 통관대(NOTHING TO DECLARE)를 통하여 나오면 된다.

6) 휴대품 통관

☐ 외화 반출입은 자유

- 알코올과 담배는 EU 역내국과 EU 역외국으로부터의 반입량에 큰 차이가 있다.

- 만 20세 성인부터 알코올 반입이 가능하며 2004년부터 EU 역내국으로부터의 알코올 반입량에는 제한이 없다. 단 반입량이 큰 경우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반입하는지 또는 상업적인 판매 목적으로 반입하는지의 여부는 관세청에서 판단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 개인 사용 및 상업적 반입 기준치는 1인당 독주 10리터(알코올 22% 이상) 또는 포도주 20리터(알코올 함유 15~22%)와 그밖에 포도주 90리터(알코올 함유 15% 이하) 및 맥주(알코올 함유 3.5% 이상) 110리터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 EU 역외 국으로부터의 알코올 반입량은 만 20세 성인 1인당 독주 1리터(알코올 22% 이상) 또는 포도주 2리터(알코올함유 15~22%)와 그밖에 포도주 2리터(알코올 함유 15%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 만 18세 성인부터 담배의 반입이 가능하며 2004년부터 EU 역내국으로부터의 담배 반입량에는 제한이 없다. 단 반입량이 큰 경우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반입하는지 또는 상업적인 판매 목적으로 반입하는지의 여부는 관세청에서 판단하는 것으로 한다.
- 개인 사용 및 상업적 반입 기준치는 1인당 담배 800개비, 시가 200개로 기준을 정하고 있다.
- EU 역외국으로부터의 담배 반입량은 만 20세 성인 1인당 담배 200/시가 50 개피로 제한하고 있다.

○ 마약, 무기류, 폭발물, 방사성 물질, 살아있는 동물, 어·육류식품 등은 반입이 규제되고 있다.

마. 환율/환전

1) 화폐 단위

화폐 단위는 스웨덴 크로나(Swedish Krona, SEK)이며 부속 단위는 어레(ore)로 100어레가 1크로나이다. 표기 방법은 통상 SEK100,50이며, 부속 단위는 50어레까지만 사용한다. 표기 시 크로나와 어레 사이에 "." 이 아니라 ","인 점을 유의해야 한다.

화폐의 종류로는 액면가 20, 50, 100, 500, 1,000크로나 지폐가 있으며, 액면가 1, 5, 10크로나와 50어레 동전이 있다.

2) 환율

과거 수년간의 연평균 환율은 다음 표와 같으며, 2009년 1-8월 평균 환율은 미화 1달러 당 7.97 SEK이다.

○ 과거 연평균 환율(1달러:SEK)

- 2004: 7.35 SEK, 2005: 7.48 SEK, 2006: 7.37 SEK, 2007: 6.76 SEK, 2008: 6.58 SEK

3) 환전

환전은 은행이나 우체국은 물론이고 호텔이나 기타 환전소에서도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환전하는 것보다 Forex, X-change, American Express 등의 환전소에서 환전하는 것이 유리하며, 호텔에서의 환전이 제일 비싼 편이다.

□ 스톡홀름에 위치한 환전소는 다음과 같다.

Forex

위치	주소	전화	영업 시간
Sverigehuset (스웨덴의 집)	Hanmgatan 27	+46-08-20 03 89	08:00~15:00(월~금) 09:00~15:00(토, 일)
Centralstationen (중앙역)	-	+46-08-411 67 34	07:00~21:00(매일)
NK (NK백화점 내)	Hamngatan 18-20	+46-08-762 83 40	10:00~19:00(월~금) 10:00~17:00(토) 12:00~17:00(일)
Arlanda flygplats (알란다 공항 내)	Terminal 2	+46-08-593 622 71	06:00~10:30(매일)

X-Change

위 치	주 소	전 화	영업 시간
Arlanda flygplats (알란다 공항 내)	Terminal 5	+46-08-787 8557	05:30~20:30(매일)
시내 중심가	Kungsgatan 30	+46-08-5061 0700	08:00~19:00(월~금) 09:00~16:00(토)
PUB (PUB 백화점 내)	Hotoret	+46-08-10 3003	10:00~19:00(월~금) 10:00~17:00(토) 12:00~17:00(일)

이밖에 환전이 가능한 은행의 영업 시간은 통상 월~금 09:30~15:00, 일반 우체국은 월~금 09:30~18:00이며, 토요일은 10:00~13:00이다.

바. 교통/통신

1) 우리나라와의 교통

스웨덴과 한국과의 항공 직항로는 없으며, 대부분 유럽의 도시들을 경유하여 운항하고 있다. 항공기 편으로는 KAL, Air France, KLM, SAS, Lufthansa, 타이 항공 등이 있으며, 그 경로는 스톡홀름을 출발하여 프랑크푸르트, 파리, 또는 암스테르담, 방콕 등을 경유하여 서울에 도착하게 된다. 모스크바를 경유하여 서울을 가는 러시아 항공사가 있으나, 서비스가 좋지 않고 모스크바에서 1박을 해야 하는 등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다. 선편으로도 직접 연결되는 노선은 없으며 요테보리 또는 말뫼 등지에서 함부르크 또는 암스테르담을 거쳐 한국과 연결된다.

2) 국내 교통

스웨덴 국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교통편으로는 택시, 지하철, 전철, 시내버스, 기차, 시외버스 등이 있다. 택시를 비롯한 대부분의 교통 수단이 한국처럼 복잡하지는 않으나, 요금이 매우 비싸다. 또한 버스, 지하철, 전철 등 대중교통 수단은 각 시간표에 따라 정해진 시간에 운행되며 서비스가 매우 좋은 편이다. 각 교통 수단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택시

택시 이용 가격은 운행 회사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나며 가격 계산 방식도 각기 다르다. 스톡홀름의 대표적인 택시 회사인 Taxi Stockholm의 경우, 택시를 지정 장소까지 호출하는 기본 요금이 36kr이며, 09:00~15:00시간대에는 시간당 294kr에 km당 7.60kr를 합산하여 가격이 계산된다. 나머지 시간에 택시를 이용할 경우에는 가격이 좀 더 비싸진다.

택시는 회사나 지하철역 근처 또는 호텔 등지에서 대기하고 있으며, 승객을 찾아 시내를 배회하지는 않는다. 필요 시 호텔 프론트에 부탁하거나 전화 또는 공중전화로 직접 호출할 수 있다. 호출 시 승객 명, 택시 대기 장소, 목적지 등을 말해야 하며 택시 도착 시간을 정확히 알려주면 호출 후 10분 이내에 도착하는 게 보통이다. 택시 요금 지불 시 금액에 관계 없이 각종 신용카드로 지불이 가능하며 택시 요금 영수증을 발급받게 된다.

스톡홀름 시내와 Arlanda 공항 사이를 다니는 택시는 정액 요금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시내에서 공항까지의 요금은 475Kr, 공항에서 시내까지는 390Kr에 이용할 수 있다.

택시의 겉면이나 위에 택시회사를 표시하는 사인보드가 있으며, 대개 스톡홀름 시내에서 알란다 공항간의 고정 요금이 명기되어 있다. 표시되어 있지 않을 경우, 사전에 가격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이용할 만한 택시 회사로는 Taxi Stockholm(전화: 08-150000), Taxi Kurir(08-300000), Taxi 020(020-939393), TOPCAB(08-333333) 등이 있다.

□ 기차

기차의 경우, 스톡홀름 중앙역이 집결지로서 인근 노르웨이나 덴마크로의 기차 여행도 가능하다. 당일 매표소에서 승차권을 구입할 수도 있으나, 가능한 사전 예약을 하는 것이 안전하고 바람직하다.

국내 주요 도시를 운행하는 초고속 열차인 X2000은 시속 200km로 운행하며, 열차 내 서비스가 좋아 편리한 여행을 할 수 있다.

스톡홀름에서 요테보리로 이동할 때, 초고속 열차인 X2000을 이용할 경우 시내 중심의 중앙역에서 출발하게 되며 2시간 52분이 소요되나, 비행기를 이용할 경우 공항까지 나가야 하는 시간을 감안하면 비행기보다 X2000을 이용하는 것이 오히려 간편하고 빠른 편이다.

기차표 예매를 위한 중앙역 연락처는 020-757575(전화)이다.

□ 시내 버스

스톡홀름의 시내 버스와 지하철은 국영 기업인 SJ AB사가 일괄 운영하고 있으므로, 시내 버스와 지하철 노선이 잘 연계되어 있을 뿐 아니라 한 티켓으로 지하철과 시내 버스를 모두 이용할 수 있다.

시내버스 요금은 1구간에 20크로나로 티켓은 승차 시에만 제시되며, 첫 승차로부터 1시간 내에는 같은 티켓으로 버스나 지하철을 여러 번 이용 가능하다.

□ 지하철

지하철의 경우, 모든 입구는 청색의 "T"(툰넬바나, Tunnelbana의 약자, 스웨덴어로 지하철을 의미함)로 표시되어 있으며, 개찰구에서 행선지를 말하면 구간에 따른 요금을 알려준다. 정액권으로서는 30일간(690크로나), 7일간(260크로나), 3일간(200크로나), 1일간(100크로나) 등이 있다.

스톡홀름으로부터 전국으로 연결되어 있으나 그렇게 많이 이용되지는 않는다. 시외 버스는 스톡홀름 중앙역 맞은 편의 City Terminal에서 출발한다.

3) 국제 통신

국제 전화 요금은 대체로 비싼 편이며, 특히 호텔에서 이용하는 국제 통화 요금은 매우 비싸기 때문에 가급적 피하는 게 좋다. 전화카드를 사서 공중전화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으며 전화 카드는 호텔 리셉션 및 담배 가게, 지하철 근처 가게(Pressbyran)등 여러 곳에서 구매가 가능하다.

한국 전화 교환원이 나오는 Collect Call을 이용할 수 있다:

- 한국통신 020-799 355, 데이콤 020-799 082.

한편 Collect Call을 이용하지 않고 직접 한국으로 전화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전화를 한다.

- 스웨덴에서 한국으로 전화를 걸 경우, 먼저 00을 누르고, 한국국가 번호 82를 누른 후 지역 번호 및 가입자 번호를 누르면 된다. 예를 들어 KOTRA 본사에 전화를 걸 경우, 00-82-2-3460 7114를 누르면 된다.
- 한국에서 스웨덴으로 전화를 걸 경우에는, 먼저 001(혹은 002)을 누르고, 스웨덴 국가번호 46을 누른 뒤, 지역 번호 및 가입자 번호를 누르면 된다. 예를 들어 스톡홀름 KBC에 전화를 걸 경우에는 001(혹은 002)-46-8-30 8090을 누르면 된다.

4) 국내 통신

스웨덴 국내에서 국내 전화를 할 경우, 지역 번호 및 가입자 번호를 누르면 된다. 공중전화는 시내 요소마다 설치되어 있으나 휴대폰 사용이 늘어나자 점점 사라지는 추세이다. 동전 사용 공중전화는 중앙역을 제외하고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며, 대부분은 카드사용 전화기이므로 전화카드를 미리 구입하여야 한다.

스웨덴의 주요 지역 번호는 스톡홀름 08, 요테보리 031, 옴살라 018, 룬드 046 등 이다.

사. 호텔/식당

1) 호텔

스웨덴의 대부분의 호텔은 청결하며 이용하는데 큰 불편이 없다. 스톡홀름 알란다(Arlanda) 공항에서 나오면 정면에 호텔 예약대가 있어 항시 예약이 가능하지만, 일년 내내 개최되는 많은 국제 행사로 미리 예약하는 것이 안전하다.

호텔 가격은 싱글 룸의 경우 최상급 2,000~3,000크로나, 상급 1,800~2,000크로나, 중급 1,000~1,600크로나, 저급 900크로나이다. 이 요금에는 대개 아침 식사와 서비스료가 포함되어 있다(2009년 1~8월 평균 환율 1달러=7.97 SEK).

한편 스톡홀름시가 운영하는 Hotellcentralen(전화: +46-8-789 24 25, 팩스: +46-8-791 86 66, 이메일: hotels@stoinfo.se)을 통한 호텔 예약도 가능하나, 많은 관광객들의 이용으로 통화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호텔 안내 웹사이트(www.stockholmtown.com 또는 www.stoinfo.se)를 통하여 예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스웨덴의 호텔은 대개 아래에 적힌 3개의 대형 호텔 체인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다.

호텔 체인명	홈페이지	비 고
Radisson SAS Hotels	www.radissonsas.com	스웨덴 전역에 16개 호텔, 스톡홀름 전역에 6개 호텔 보유
Scandic Hotels	www.scandic-hotels.com	스웨덴 전역에 80개 호텔, 스톡홀름 전역에 17개 호텔 보유
First Hotels	www.firsthotels.com	스웨덴 전역에 44개 호텔, 스톡홀름 전역에 5개 호텔 보유

□ 스톡홀름 시내에 위치한 추천할 만한 호텔은 다음과 같다.

호텔명	주 소	전 화
Hotel Diplomat	Strandvagen 7C	+46-8-663 5800
Radisson SAS, Royal Viking Hotel	Vasagatan 1	+46-8-50 65 4000
Scandic Hotel Anglais	Humlegardsgatan 23	+46-8-517 340 43
First Hotel, Crystal Plaza Hotel	Birger Jarlsgatan 35	+46-8-24 76 60
Hotel Birgerjarl	Tulegatan 8	+46-8-15 10 20
Scandic Hotel, Sergel Plaza	Brunkebergstorg. 9	+46-8-22 66 00
Scandic Hotel, Malmen	Gotagatan 49-51	+46-8-517 347 00
Hotel Bema	Upplandsgatan 13	+46-8-23 26 75

2) 식당

스웨덴 전통 요리를 먹을 수 있는 중저가 식당은 그리 많지 않으며, 주로 외국계 식당이 대부분이다. 스웨덴 전통 요리는 주로 생선과 고기 요리이며 야채를 매우 적게 사용하는데, 가정 요리로는 미트볼이 유명하다.

스웨덴인들이 즐기는 음식으로는 크리스마스 전후에 먹는 전통 뷔페인 '스머르고스부드(Smorgasbord)'가 유명하다. 스머르고스부드는 쇠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닭고기, 사슴고기 등 고기 요리와 새우, 가재, 청어 등 해산물, 치즈, 샐러드, 과일 등을 고루 갖춘 스웨덴식 모듬 뷔페이다.

시내 곳곳에는 프랑스식, 이탈리아식, 중국식, 아랍식 식당들이 많이 있으며, 피자 및 햄버거 등을 파는 패스트푸드점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전식-본식-후식의 세 코스로 이루어진 정식은 200~300크로나 안팎이다.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평일 점심 시간대(11:00~14:00)에는 '오늘의 요리'라 불리는 "다겐스랏(Dagensratt: 주요리, 샐러드, 빵과 버터, 음료수, 커피 등이 포함)"을 70~100크로나로 주문할 수 있다.

식당에서는 팁을 거의 안주며 다만 여러 가지를 문의하거나 개별적인 서비스를 받았을 경우 거스름돈을 주는 정도가 대부분이었으나, 저녁 식사 경우에는 약 10% 정도의 팁을 주는 것이 관행으로 굳어져 가고 있다.

한국 식당은 스톡홀름 시내에 2곳이 있으며, 평일의 경우 점심식사가 95~100크로나, 한식 메뉴는 180~250크로나 정도이다.

□ 스톡홀름 내 주요 식당 위치 및 전화번호는 다음과 같다.

식당 명	주소	전화번호	비고
남강	Birger Jarlsgatan 38	08-611 3292	한식, 일식
아리랑	Luntmakargatan 65	08-673 3225	한식
Shogun	Tyska Brinken 36	08-20 82 05	일식
Hong Kong	Kungsbro Strand 23	08-653 7720	중식
Operakallaren	Kalexlistorg	08-676 58 00	스웨덴식
Godthem	Rosendalsvagen 9	08-661 07 22	스웨덴식
Ulriksdals Vardhus	Ulriksdals Slottspark	08-85 08 15	스웨덴식

아. 관공서 관행

스웨덴 관공서는 정해진 규칙대로 일을 처리하기 때문에 융통성이 거의 없다.

대부분의 관공서들이 전화 문의 시간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대를 알아두면 편리하다. 일반적인 전화 가능 시간대는 오전10시~12시와 오후 2시~4시이다.

관공서 내 행정 전산망은 거의 완벽한 상태로 모든 기관에서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며 특정 사안별로 정해진 규정에 따라 기계적으로 처리되어 자의적, 인위적 처리는 거의 없다.

일 처리가 지연될 경우에는 적당한 시기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확인이나 독촉할 수 있다. 그러나 일처리를 위한 뇌물 수수는 통용되지 않으며 과도한 선물도 환영 받지 못한다.

자. 공휴일

2009년 스웨덴의 법정 공휴일

법정 공휴일 명	날짜 및 요일
신정(New Year's Day)	1.1(목)
예수공현일(Epiphany)	1.6(화)
성금요일(Good Friday)	4.10 (금)
부활절(Easter Sunday)	4.12 (일)
부활절(Easter Monday)	4.13 (월)
노동절(May Day)	5.1(금)
예수승천일(Ascension Day)	5.21(목)
성령강림절(Whit Sunday)	5.31(일)
국경일(National Day)	6.6(토)
하지(Midsummer Holiday)	6.20(토)
만성일(All Saint's Day)	10.31(토)
성탄절(Christmas Day)	12.25(금)
성탄절(Boxing Day)	12.26(토)

상기 공휴일 외에 대부분의 기업들이 각 법정 공휴일 전날 휴무나 오전 근무를 채택하고 있다. 하지 이브, 성탄절 이브, 신정 이브는 휴무이며, 성 금요일 이브는 오전 근무로 전통 휴일로 지키고 있다.

차. 여행시 유의 사항

1) 여행 준비

스톡홀름의 1월 평균 기온이 영하 3도, 7월 평균 기온이 영상 17도인 것을 고려하여 의복 준비를 하면 된다. 특히 여름에도 바람이 많이 불고 일교차가 큰 만큼 항상 긴 옷을 준비하여야 한다.

스웨덴의 전기기기는 230V, 50Hz 기준이므로 여행용 전기기기 사용 시 유의해야 한다. 한국산 제품은 60Hz를 기준으로 생산되어 이곳에서 사용하는 데 별 문제가 없지만, 이곳 제품을 구입할 경우에는 한국에 돌아가서 사용하는 데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2) 여행 여건

여행을 위한 기본 여건은 매우 발달되어 있으며, 스웨덴 전국 각지에 위치한 여행 안내소와 안내 지도 등의 주변 시설을 이용하면 편리하다. 특히 스톡홀름 여행시에는 스톡홀름 중앙역(Central Station)의 안내소(Information Center) 또는 Sweden House(Sverigehuset: 주소 Hamngatan 27)에서 여행 안내 자료를 받거나 여행 관련 문의가 가능하다. 여행 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참고로 하도록 한다.

☐ 치안

사회가 전반적으로 안정되어 있어 비교적 치안 문제가 없지만 최근에 부쩍 사회 범죄 특히 청소년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주말을 끼고 심야에 범죄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도심지를 벗어난 인근 외곽 지역에서는 인구 이동이 적은 시간대에 사고가 날 경우 도움을 청하기 어렵다. 공항 및 중앙역, 관광 명소 등 여행자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는 도난 사고가 빈번한 만큼 주의를 요하도록 한다.

☐ 시내 교통

택시 및 시내버스, 지하철 이용이 편리하며 대부분의 지역이 버스 또는 지하철로 잘 연계되어 있다. 대중 교통 요금은 다소 비싼 편이며, 스탬프를 찍은 후 1시간 이내에는 같은 승차권으로 여러 번 버스와 지하철 이용이 가능하다.

☐ 응급

응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112를 돌리면 된다. 경찰, 병원, 소방서 등 여러 기관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운영되므로, 무슨 일이든 상담 및 도움 요청이 가능하다.

간단한 약은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으나 대부분은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한다.

약국 개장 시간(월~금: 09:00~18:00, 토: 10:00~14:00) 이외에 약국을 이용해야 할 경우에는 연중 24시간 개점하고 있는 스톡홀름 시내에 위치하고 있는 약국(Apoteket C. W. Scheele 주소: Klarabergsgatan 64, 전화: 08-454 81 30)을 이용할 수 있다.

병원 이용 시 스웨덴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 진료비가 매우 비싸므로 여행 전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면 좋다.

스톡홀름 시내에서 응급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시내 응급실(City Akuten, 주소: Apel-bergsgatan 48, 전화: 08-412 29 60)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 팁 관행

호텔이나 레스토랑은 대부분 요금에 서비스료가 포함되어 있다.

점심 식사와 저녁 식사에는 요금의 10% 또는 1인당 10크로나(약 1달러) 정도를 팁으로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호텔에서 체크아웃 할 경우에도 1~5달러 정도를 남겨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개별적으로 서비스를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팁을 제공한다.

택시 요금에도 서비스료가 이미 포함되어 있어 팁이 특별히 요구되지는 않지만 1~5달러 사이의 약간의 팁은 줘도 무방하다.

☐ 식수

스웨덴의 수도물은 그대로 식수로 사용할 수 있으며 질이 매우 양호하다. 그 밖에 슈퍼마켓 등지에서는 미네랄 워터를 구입할 수 있다.

3) 쇼핑

☐ 물가

물가는 대체적으로 한국보다 비싼 편이나 유명 브랜드 등의 고가품은 한국보다 오히려 약간 저렴하고, 저가품은 한국보다 훨씬 비싼 편이다. 특히 술과 담배는 세금이 높아 한국에 비하여 월등히 비싸다. 다음의 품목별 물가는 대중치이므로 상점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2009년 9월 말 기준 대미 환율 1달러=SEK 7.02).

- 쇠고기 등심 1Kg: SEK 269
- 닭고기(가슴살) 1Kg: SEK 139
- 햄버거(맥도날드 빅맥): SEK 47
- 코카콜라(35CC, 1병): SEK 20
- 커피(네스카페, 200g): SEK 80
- 신문(일간지 1부): SEK 21

☐ 쇼핑 장소

쇼핑 장소로서 시내 중심지에 위치한 올렌스(Ahlens) 백화점, PUB 백화점, NK 백화점이 애용되고 있으며, 이 밖에도 많은 쇼핑 상점들이 시내에 있는 편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각 구마다 상점이 밀집하여 있는 센터(Centrum)가 하나씩 있어서 시내에 굳이 나가지 않아도 여기서 모든 종류의 쇼핑이 가능하다.

한편 도심 외곽 지역에 위치한 대형 전문 할인점들이 있기는 하지만, 지역에 익숙한 사람의 도움 없이는 물건 구입이 어려운 편이다.

☐ 특산물

스웨덴의 특산물로는 먼저 크리스털 제품을 들 수 있다. 오레포쉬(Orrefors) 및 코스타보다(Kosta Boda) 등의 유명 제품들이 있으며, 백화점 및 전국 체인점인 DUKA 등에서 구입할 수 있다.

이 밖에 스웨덴 주요 특산물로서 달라나 지방의 말과 같은 목각품, 가죽 제품 등을 들 수 있다.

4) 유용한 연락처

☐ 비상 연락처

- 비상구급대: 전화 112
- 앰불런스: 08-454 2100
- 약품 안내: 020-66 7766
- 응급 구조대(소방서): 08-463 9060
- 시내 응급실(City Akuten): 08-412 2960
- 응급실(Danderyd 병원): 08-655 5000

☐ 현지 관공서

- 정부 청사
 - 주소: Rosenbad 4. 103 33 Stockholm Sweden
 - 전화: 46-8-405 1000 (교환 번호)
 - 홈페이지: www.regeringen.se
- 통계청
 - 주소: Karlav. 100 Box 24300. 104 41 Stockholm Sweden
 - 전화: 46-8-783 4000, 팩스: 46-8-661 5261
 - 홈페이지: www.scb.se

☐ 은행

- 중앙은행
 - 주소: Sveriges Riksbanken, 103 37 Stockholm
 - 전화: 46-8-787 0000, 팩스: 46-8-787 0526W
 - 홈페이지: www.riksbanken.se

☐ 경제 관련 기관

- 스톡홀름 상공회의소
 - 주소: Box 16050 103 21 Stockholm Sweden
 - 전화: 46-8-555 100 00, 팩스: 46-8-566 316 00
 - 홈페이지: www.chamber.se

- 스웨덴 무역협회
 - 주소: Storgatan 19, 114 85 Stockholm, Sweden
 - 전화: 46-8-783 8500, 팩스: 46-8-662 9093
 - 홈페이지: www.swedishtrade.se

□ 한국 기관

- 대사관
 - 주소: Laboratoriegatan 10, 102 53 Stockholm, Sweden
 - 전화: +46-8-5458 9400, 팩스: +46-8-660 2818
 - 홈페이지: www.mofat.go.kr/mission/emb
- 소피아 KBC
 - 주소: Svardvagen 11C, Box 625, S-182 16 Stockholm, Sweden
 - 전화: +46-8-30 8090, 팩스: +46-8-30 6190
 - 홈페이지: www.kotra.or.kr/stockholm
- 삼성전자
 - 주소: Kanalvagen 10A, 194 27 Upplands Vasby, Sweden
 - 전화: +46-8-590 96600, 팩스: +46-8-590 96650
 - 홈페이지: www.samsung.se
- 대우전자
 - 주소: Kanalvagen 10A, 1tr, 194 61 Upplands Vasby Sweden
 - 전화: +46-8-594 705 20/21, 팩스: +46-8-594 705 29
 - 홈페이지: www.daewoo.se
- LG 전자
 - 주소: Esbogatan 18, Box 83, S-164 94 Kista, Sweden
 - 전화: +46-8-566 41500, 팩스: +46-8-566 41599
 - 홈페이지: www.lgenordic.com
- 기아자동차
 - 주소: Kanalv 12, 194 61 Upplands Väsby, Sweden
 - 전화: +46-8-400 44352, 팩스: +46-8-400 44390

카. 관광 명소

1) 구시가지(감라스탄, Gamla Stan)

옛 시가지로서 중세 스톡홀름의 중심가이다. 작은 섬이지만 이곳에는 왕궁, 대교회, 독일 교회, 증권 거래소, 핀란드 교회 등 유서 깊은 건물이 많이 들어서 있다. 왕궁의 서북쪽에는 의회 청사와 중앙은행이 등을 맞대고 서 있으며 그 주위에는 내각 청사(Kanslihuset), 외무성, 내무성을 비롯하여 관청가를 이루고 있다.

옛날에는 왕궁을 중심으로 이 일대가 성벽으로 둘러 쌓여 있었는데 지금은 그 자취만 찾아 볼 수 있다. 감라스탄은 길의 폭이 좁고 양쪽엔 골동품이나 잡화상들이 있으며 간판들도 옛 모습 그대로 부착되어 있다.

스톡홀름 시는 이 섬 전체를 문화재 보호 구역으로 정하고 시 박물관의 지도에 따라 옛날 원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2) 시청사(Stadshuset)

스톡홀름 정치의 중심지인 시청사는 매년 12월 10일 열리는 노벨상 파티장으로도 유명하며, 외국 관광객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관광지 중 한 곳이기도 하다.

"임금님의 섬"으로 불리는 쿡스홀멘(Kungsholmen)에 시청사가 자리잡고 있는데, 멀리서 보면 멜라렌 호수에 떠있는 궁전마냥 아름다운 모습이다. 이 시청사는 구스타브 바사 왕이 덴마크를 쳐부수고 스톡홀름으로 들어온 지 400년이 되는 1923년에 이를 기념하기 위해 세운 것이다.

시청사 건물은 건축가로서 이름 높은 "라그너 예스터베리"가 설계하여 12년에 걸쳐 완공되었다. 스웨덴의 상징인 "세 왕관"을 떠받친 탑에 올라서면 전 시가지를 한 눈에 내려다 볼 수 있다.

정오가 되면 옛 민요의 일절을 탄 탑의 종이 울리며 인형이 움직인다. 호숫가에는 스톡홀름의 기초를 다진 "비르예르 알" 공의 동상이 서 있다.

시청사는 시행정의 중심부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실제 업무는 시의 여러 곳에 분산된 지방 자치 기관에서 이루어지며, 이곳은 주로 시의회 회의나 행사에 이용되고 있다.

시청사에는 황금방(Gyllene Salen)이라고 불리는 큰 홀이 있는데 이곳은 노벨 만찬 후 댄스 파티가 열리는 연회 장소이다. 벽면은 1,900만 개의 작은 모자이크를 사용한 아름다운 그림으로 되어 있다. 정면에는 멜라렌 호수의 여왕의 모습이 황금 빛 모자이크로 묘사되어 있으며, 좌우의 벽에는 역사상의 인물과 사건들이 형상화되어 있다.

또한 시청사에는 100개의 의석을 가진 시 회의실(Rikssalen)이 있다. 벽면에 시의 옛 지도가 그려져 있으며 천장은 바이킹의 배를 본떠 만들어서 하늘이 보아야 할 부분에는 별과 달이 그려져 있다.

3) 바사전함 박물관(Vasa Museet)

바사 박물관은 스톡홀름 앞 바다의 물위에 떠있는 기묘한 해상 박물관이다. 이 박물관에는 1628년 침몰하여 333년만인 1961년에 인양된 전함인 바사호가 전시되어 있으며, 인양 당시의 다른 인양물도 함께 전시되어 있다.

구스타브 아돌프 2세의 명으로 건조된 바사호는 1628년에 진수, 처녀 출항을 떠나기 앞서 왕궁 아래의 선창에서 강풍과 함께 수심 32m의 항 내에서 침몰하였다.

1956년에 인양작업을 시도, 333년만인 1961년 4월 바사호가 수면에 다시 그 위용을 나타냈으며 항 내에서는 2만 4,000점에 달하는 물건이 수집되었다.

배는 습도 90%의 해상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고 항시 보존용 약품이 뿌려져 있다. 배의 길이는 56미터, 높이는 18미터, 중량이 1천400톤이나 된다.

승무원의 유골은 북구박물관 왼쪽의 아름다운 묘지에 매장되고 바사호의 닻으로 장식되어 있다.

4) 민속박물관(스칸센, Skansen)

과거 왕가의 사냥터였던 유르고덴 섬에 위치한 스칸센은 세계에서 가장 큰 야외 민속 박물관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150 개의 재래 주택, 수공예점, 동물원 등이 있다.

5) 여왕섬(드로트닝홀름, Drottningholm)

1744년 Fredrik 1세에 의해 건축되었으며 1750년 Lovisa Ulrika 왕비의 명에 의해 증축된 왕궁으로 일명 스웨덴의 베르사이유궁이라고 불리고 있다. 바로크와 로코코 양식이 잘 어우러져 있다.

1777년 구스타브 3세와 Lovisa 여왕이 정부에 팔았다가 1981년 현 왕가에서 다시 사들였으며, 현재 스웨덴 국왕 가족이 거주하고 있다.

9. 주요 전시회 개최일정

□ 스칸디나비아 보트 박람회 Scandinavian Boat Show (Scandinavian Boat Show)

개최국가/도시	스웨덴/스톡홀름		
개최주기	매년	최초개최년도	1997년
개최기간	2009.11.04 ~ 2009.11.08	개최규모	10000
전시장	Stockholm International Fairs		
참가국수	7 개국	개최국 참가업체수	194 개업체
외국참가업체수	33 업체	개최국 참관객수	29,471 명
주요참가국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한국업체참가여부	NO	한국참가업체수	0 개사
전체참관객수	34,671 명	외국참관객수	5,200 명
전시회지명도	★★★★★	부스배정난이도	★★★★★★
전시분야	조선.보트		
부스당 임차료 (㎡ 당)	216,750 원		
임차료수준	조립식 부스 () 독립식 부스 (SEK6200+SEK1500+VAT25%)		
주최기관	Scandinavian Boat Show		
주최기관 담당자	Mr. Thomas Sandberg		
주최기관 주소	S-125 80 Stockholm		
주최기관 TEL	(46-8)749-4494		
주최기관 팩스	(46-8)749-6190		
주최기관 URL	www.scandinavianboatshow.com		
주최기관 e-메일	thomas.sandberg@stofair.se		
전시품목	sail/motor/rubber boats, boat accessories, electronical equipment, navigation, canvas, motors, trailers etc.		
비고	북구 최대 보트 박람회.		

□ 스톡홀름 치과박람회 SWEDENTAL (SWEDENTAL)

개최국가/도시	스웨덴/스톡홀름		
개최주기	격년	최초개최년도	1973년
개최기간	2009.11.12 ~ 2009.11.14	개최규모	5800
전시장	Stockholm International Fairs		
참가국수	14 개국	개최국 참가업체수	212 개업체
외국참가업체수	26 업체	개최국 참관객수	12,308 명
주요참가국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한국업체참가여부	NO	한국참가업체수	0 개사
전체참관객수	13,308 명	외국참관객수	1,000 명
전시회지명도	★★★★★	부스배정난이도	★★★★★
전시분야	의료기기.약품.위생		
부스당 임차료 (㎡ 당)	314,500 원		
임차료수준	조립식 부스 () 독립식 부스 (SEK16650/9sm+SEK5900+VAT25%)		
주최기관	Stockholm International Fairs		
주최기관 담당자	Jörgen Bergström		
주최기관 주소	S-125 80		
주최기관 TEL	+46-8-749 43 22		
주최기관 팩스	+46-8-749 44 44		
주최기관 URL	http://swedental.stofair.se		
주최기관 e-메일	jorgen.bergstrom@stofair.se		
전시품목	The Swedental exhibition will feature the following: - Aids for records, offices and computers - Computer equipment - Consulting services - Dental technology equipment and expendables - Dental technology services - Equipment for clinics and practices - Expendable supplies - Hand instruments - Fixtures and fittings for clinics and laboratories - Fixtures and fittings for kitchenettes and waiting rooms - Hygiene products, - Implants - Systems - Pharmaceutical products - Protective and working clothes, Specialist literature		
비고	북유럽 최대의 치의학 박람회.		

□ 스톡홀름 바이오테크 박람회 Biotech Forum + ScanLab (Biotech Forum + ScanLab)

개최국가/도시	스웨덴/스톡홀름		
개최주기	격년	최초개최년도	2000년
개최기간	2009.11.27 ~ 2009.11.29	개최규모	1600m2
전시장	Stockholm International Fairs		
참가국수	20 개국	개최국 참가업체수	215 개업체
외국참가업체수	120 업체	개최국 참관객수	10,500 명
주요참가국	스웨덴, 덴마크, 영국, 핀란드, 독일		
한국업체참가여부	NO	한국참가업체수	0 개사
전체참관객수	11,500 명	외국참관객수	1,000 명
전시회지명도	★★★★★	부스배정난이도	★★★★★
전시분야	의료기기.약품.위생		
부스당 임차료 (㎡ 당)	324,700 원		
임차료수준	조립식 부스 () 독립식 부스 (SEK23805/9m2+ 기본등록비SEK4,400 + VAT25%)		
주최기관	Stockholm International Fairs		
주최기관 담당자	Mr. Kim Lindhe		
주최기관 주소	Massvagen1, Alvsjo, SE-125 80 Stockholm, Sweden		
주최기관 TEL	(46-8)749 4396		
주최기관 팩스	(46-8)749 6177		
주최기관 URL	www.stofair.se , www.biotechforum.org		
주최기관 이메일	kim.lindhe@stofair.se		
전시품목	Analyse, bioengineering, bioinformatics, biotechnology, clinical equipment, diagnostics, environment, laboratory materials/equipment, medical equipment		
비고	동 전시회 주최자는 스톡홀름 전시장(Stockholm International Fairs)이나, 스웨덴 스톡홀름 전시장과 덴마크 코펜하겐의 벨라센터에서 격년제로 교대 하여 개최되고 있음. 즉 짝수해는 덴마크에서 홀수해는 스웨덴에서 개최됨.		
출처	박람회 담당자 및 홈페이지		

□ 스톡홀름 이론차 박람회 On Two Wheels (On Two Wheels)

개최국가/도시	스웨덴/요테보리		
개최주기	격년	최초개최년도	1998년
개최기간	2010.01.28 ~2010.01.31	개최규모	
전시장	The Swedish Exhibition Centre		
참가국수	20 개국	개최국 참가업체수	50 개업체
외국참가업체수	153 업체	개최국 참관객수	53,813 명
주요참가국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독일		
한국업체참가여부	NO	한국참가업체수	0 개사
전체참관객수	53,813 명	외국참관객수	0 명
전시회지명도	★★★★★	부스배정난이도	★★★★★
전시분야	자동차.이론차		
부스당 임차료 (㎡ 당)	161,500 원		
임차료수준	조립식 부스 () 독립식 부스 (SEK 1100)		
주최기관	Stockholm International Fairs		
주최기관 담당자	Peter Näsman		
주최기관 주소	Massv.1, Älvsjö, SE-125 80 Stockholm, Sweden		
주최기관 TEL	46 (0)8 749 43 60		
주최기관 팩스	(46-31)-16-03-30		
주최기관 URL	http://www.stofair.se , www.patvahjul.se		
주최기관 E-메일	peter.nasman@stofair.se		
전시품목	모터사이클, 모패드, 스쿠터, 모터사이클 부속품, 자전거, 자전거 부품 및 부속품, 헬멧, 관련 의류 및 신발		
비고	- 북유럽 최대 이론차 박람회임 - 스톡홀름 전시장과 요테보리전시장에서 번갈아가며 격년제로 개최되고 있음. 2010 요테보리 전시장에서, 2011 는 스톡홀름 전시장에서 개최될 예정임. - 최소부스임차 면적은 9m2 임. - 부스임차비와 25% 부가세 이외에 등록비 2000SEK 이 추가됨. - m2 당 부스임차료는 현재 환율(2009.3.3 1SEK=170.78 KRW)이 적용되었음		
출처	홈페이지, 담당자 Peter Näsman		

10. 유관기관 웹사이트

가. 정부기관, 공공부분, 비영리 단체

- 스웨덴 의회 (Swedish Parliament) (www.riksdagen.se)
- 스웨덴 정부 (Government of Sweden) (www.regeringen.se)
- 스웨덴 투자진흥청 (Invest in Sweden Agency) (www.isa.se)
- 스웨덴 통계청 (Statistics Sweden) (www.scb.se)
- 스웨덴 관세청 (Swedish Customs) (www.tullverket.se)
- 스웨덴 무역진흥청 (Swedish Trade Council) (www.swedishtrade.se)
- 국가 무역위원회 (National Board of Trade) (www.kommers.se)

나. 상공회의소, 경제기관

- 스웨덴 상공회의소 (Swedish Chamber of Commerce) (www.cci.se)
- 스톡홀름(Stockholm) 상공회의소 (www.chamber.se)
- 읍살라(Uppsala) 상공회의소 (www.uppsala.chamber.se)
- 스웨덴 품질규격인증기관 (SEMKO) (www.semko.se)
- 스웨덴 표준연구소 (Swedish Standards Institute) (www.sis.se)
- 스웨덴 경제연구소 (National 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 (www.konj.se)

다. 전시장

- 스톡홀름 전시장 (Stockholm Massan) (www.stofair)
- 요테보리 전시장 (Svenska Massan) (www.swefair.se)
- 온쇄핑 전시장 (ELMIA) (www.elmia.se)